

前期的 商業資本의 理論*

林 元 澤**

<目 次>	
I. $W-G-W' \cdot G-W-G'$	III. $G-W-G'$ 過程에 있어서의 不等價 交換
II. $G-W-G'$ 의 運動形態	

I. $W-G-W' \cdot G-W-G'$

1) 貨幣經濟 또는 貨幣를 媒介로 하는 單純商品生産 $W-G-W'$ 으로부터,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 $G-W-G'$ 이 發生되게 되었다.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의 發生과 더불어, 貨幣는 一般的交換手段機能과 一般的價值尺度機能의 두 개의 基本的 機能以外에 또하나 「資本으로서의 機能」도 營爲하게 되었다. 貨幣의 資本으로서의 機能이란, 流通過程에 投下된 貨幣가 商品과의 交換을 통해서 보다 多量의 貨幣를 回收해내는 그러한 機能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人類歷史上에 나타난 資本의 種類에는 商業資本 $G-W-G'$ 와 貸付資本 $G-G'$, 그리고 産業資本 $G-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W'-G' \right\rangle$ 의 세 가지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들 資本의 세 가지 種類는 資本의 種類의 全部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위의 세 가지 種類의 資本에 있어, G' 는 G 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G' > G$). 그렇지 않고 $G' = G$ 또는 $G' < G$ 이 될 때에는 그 循環運動은 전혀 無意味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G-W-G'$ 에 있어서의 貨幣形態의 $g(g = G' - G)$ 는 商業利潤이라고 하고, $G-G'$ 에 있어서의 貨幣形態의 $g(g = G' - G)$ 는 利子라고 부르고, 그리고 $G-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W'-G' \right\rangle$ 에 있어서의 貨幣形態의 $g(g = G' - G)$ 는 産業利潤이라고 稱한다는 것도 周知의 事實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商業資本이란, 商品의 購買 및 販賣를 통해서 貨幣

*이 論文은 『經濟論集』, 第Ⅳ卷 第3號에 掲載된 「交換 및 貨幣의 一般理論」의 繼續인.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教授

形態의 商業利潤을 追求하는 貨幣의 循環機能에 대한 名稱이고, 貸付資本이란, 貨幣貸付 및 그 元利金回收을 통해서 貨幣形態의 利子를 追求하는 貨幣의 循環機能에 대한 名稱이며, 產業資本이란, 生産要素의 購買·生産要素結合에 의한 商品生産·商品販賣를 통해서 貨幣形態의 產業利潤을 追求하는 貨幣의 循環機能에 대한 名稱이다라고도, 그리고 또 우리는 이와 같은 貨幣形態의 商業利潤·利子·產業利潤을 追求하는 商業資本·貸付資本·產業資本의 機能을 통털어 資本主義라고 불러두기로 한다.

그리고 또 그 種類가 商業資本이든 貸付資本이든 또는 產業資本이든 어떠한 것이든간에, 통털어 資本主義는, 間接交換 내지는 貨幣經濟 $W-G-W'$ 라는 下部構造 위에 좃아 오히려 上部構造가 된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될 줄 생각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意味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첫째로는 資本主義는(그것이 어떠한 種類의 資本이든) $W-G-W'$ 의 變形된 形態라는 意味에서이고, 둘째로는 資本主義 一般은 $W-G-W'$ 의 循環形態를 交換相對者로 해야만 그 成立이 可能하다는 意味에서이고, 그리고 셋째로는 商業利潤·利子·產業利潤 등의 窮極의 負擔者는 바로 $W-G-W'$ 가 된다는 意味에서이다.

2) 그리고 또 우리는 資本 내지는 資本主義의 一般定式을 Marx 에 따라서

$$G \dots G'$$

라고 規定해 두기로 한다. 「全過程이 消滅한 結果는 貨幣의 貨幣에 대한 交換(Austausch von Geld gegen Geld) $G \dots G'$ 이 된다. 내가 100 파운드·스터링으로써 2000 封度の 棉花를 購買하고, 그 2000 封度の 棉花를 또다시 110 파운드·스터링으로써 販賣했다고 한다면, 結局 나는 100 파운드·스터링으로써 110 파운드·스터링에 대하여 交換했는 셈이 된다. 즉 貨幣를 貨幣에 대하여 交換했는 셈이 된다.」⁽¹⁾(榜點原書) 이것은 비단 商業資本으로부터서만 誘導될 수 있는 規定일 뿐만 아니라, 貸付資本·產業資本으로부터서도 꼭 같이 誘導될 수 있는 規定이기도 하다. 즉 $G-G'$ 으로부터서도, 그리고 또 $G-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W'-G' \right\rangle$ 으로부터서도, $G \dots G'$ 의 定式이 꼭같이 誘導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資本主義 一般은 $G \dots G'$ 와 같이 表示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貨幣의 資本으로서의 機能」, 또는 「貨幣의 資本에로의 轉化」를 맨 처음에 闡明해 준 사람은 곧 다음아닌 Marx 였었다.

3) 「貨幣의 貨幣에 대한 交換」이라고 規定된 資本 내지는 資本主義의 一般定式에서, 우

(1) K. Marx, *Das Kapital*, I, S. 154.

리는從來 一般의 交換手段의 領域에만 머물고 있던 「手段으로서의 貨幣」가 이제야 目的으로서의 貨幣」로 質的 變化를 하게 된 것을 또한 분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G \cdots G'$ 에 있어서의 G' 는 바로 目的이 된 貨幣이기 때문이다. $W-G-W'$ 에 있어서의 貨幣 G 는 W' 를 購買하기 위한 단순한 手段에 지나지 않았다. $W-G-W'$ 에 있어서의 目的은 어니까지나 W' 이며, 그리고 W' 가 目的이 되는 限, $W-G-W'$ 는 $W-W'$ 으로 變形되어도 아무런 狀況의 變更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前提 위에서 成立된 것이 바로 Say의 販路法則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G \cdots G'$ 에 있어서는 事情은 달라진다. 여기서 사람은 購買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貨幣」를 追求하지 않고, 「目的으로서의 貨幣」를 追求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細密히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은 事實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즉 商品流通過程에서 「目的으로서의 貨幣」를 追求한다는 것은 實은 貨幣形態의 利潤 또는 利子를 追求하는 것의 偽裝된 表現이란 것을. 그 理由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提示한 例에서, 사람이 100파운드·스터링으로서 110파운드·스터링을 交換한 것은 110파운드·스터링의 貨幣를 그 自體로서 追求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10 파운드·스터링의 貨幣利潤을 追求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00 파운드·스터링과 交換된 100 또는 90 파운드·스터링은 결코 「目的으로서의 貨幣」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100 파운드·스터링과 交換된 100 또는 90 파운드·스터링에는 利潤이 전혀 包含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Simmel은 「手段이 心理上 目的으로까지 成長할 經由가 있는데, 그 가장 極端한 例가 貨幣」⁽²⁾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手段으로서의 貨幣의 價値가 높아짐에 따라 手段으로서의 貨幣의 價値도 높아진다. 그것도 貨幣가 價値 그 自體로서 通用되고, 目的意識이 決定的으로 貨幣에 있어 停止할만큼 높게. 《絕對的인 手段이며 따라서 바로 그런 까닭에 大多數 사람에게 心理上 絕對的인 目的이 된다》라는 貨幣의 本質에 숨어 있는 內面的 兩極性은, 獨特한 方法으로써 貨幣를 實踐의 生活上의 커다란 服務規程이 그 속에 內包되고 있는 하나의 象徴으로 만들게 한다.」⁽³⁾(傍點原書) Simmel은 여기서 「手段으로서의 貨幣」가 「目的으로서의 貨幣」로 變化하는 「心理的 現象」에 관해서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心理的 見地에 立脚하는 限, 眞正한 「目的으로서의 貨幣」에 관한 想念은 도저히 誘導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一般의 交換手段으로서의 貨幣는 가장 큰 販賣力을

(2) G. Simmel, *Philosophie des Geldes*, 4 Aufl., 1922, S. 229.

(3) *Ibid.*, S. 234.

갖고 있는 商品이기 때문에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場所에서나 그 貨幣를 所有하는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商品도 獲得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한다. 그러나 貨幣를 除外한 其他 商品은 그러한 能力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一般的交換手段으로서의 貨幣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自己가 원하는 모든 商品을 갖는다는 것을 意味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手段으로서의 貨幣」는 心理的으로 「目的으로서의 貨幣」로 昇格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每日每日의 日常生活에서 實際로 經驗하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事實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心理的 現象으로서 外觀上 그렇다는 것이지, 事實上에 있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手段으로서의 貨幣」는 도저히 「目的으로서의 貨幣」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目的으로서 追求하고 있는 그 貨幣는 結局 一般的交換手段으로서의 貨幣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結局 다음과 같은 結論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한다. 「手段으로서의 貨幣」가 「目的으로서의 貨幣」로 轉換되는 契機는 그 貨幣가 資本으로 轉換되는 瞬間, 그 貨幣가 資本機能을 發揮하게 되는 瞬間 뿐이라는 것이다. 또는 이것은 다음과 같이도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手段으로서의 貨幣」가 「目的으로서의 貨幣」로 轉換되기 위한 必要條件은, 「目的으로서의 貨幣利潤 내지는 貨幣利子」를 追求하는 貨幣의 資本機能이 存在해야 된다는 바로 그것이라고도.

이와 같이 「目的으로서의 貨幣」는 「目的으로서의 貨幣利潤 내지는 貨幣利子」의 偽裝된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注意해두어야 할 것은 「目的으로서의 貨幣」는 「手段으로서의 貨幣」가 廢棄된 後에 成立可能한 것이 아니고, 「手段으로서의 貨幣」의 基礎 위에서 그 成立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4) 「貨幣의 貨幣에 대한 交換」을 資本 내지는 資本主義의 一般定式이라고 우리는 Marx에 따라서 規定지웠지만, 그러나 이 規定은 資本의 循環運動의 出發點과 終局點에만 着眼했을 때의 規定이다. 이 規定은 물론, 中間項인 商品을 資本의 循環運動에서 除外해도 괜찮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Marx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商品形態를 取하지 않고서는 貨幣는 資本이 되지 못한다」고 (Ohne die Annahme der Warenform, wird das Geld nicht Kapital).⁽⁴⁾ 「資本家は 모든 商品이 아무리 賤한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아무리 高價한 價를 풍기고 있어도…… 貨幣로부터 貨幣를 만들어 내는 훌륭한 方便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⁵⁾

(4) K. Marx, a.a.O., S. 162.

(5) *Ibid.*, S. 163.

이리하여 Marx의 資本理論은(그것은 또 곧 우리의 資本理論이기도 하다) 貨幣와 商品의 「形態變換」(Formwechsel)⁽⁶⁾에 관한(出發點과 終局點에는 貨幣가 있고 中間項에는 商品이 있는) 理論이 된다고 할 수 있다.(傍點筆者) 이것은 또 바꾸어 말하면 Marx의 資本理論은 所謂 實物的 資本理論과 貨幣的 資本理論의 統合을 이루고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點에 있어 Marx의 dynamic한 資本理論은, Jevons, Böhm-Bawerk 등의 一面的인 實物的 資本理論보다도, 그리고 또 Schumpeter·Hicks 등의 一面的인 貨幣的 資本理論보다도 먼저 發生했으면서도 質的으로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優秀하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그러나 Marx의 그 優秀한 資本理論도 Marx의 틀린 價值論 때문에 禍를 입어 그대로 利用되기에는 좀 거북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또 「貨幣의 貨幣에 대한 交換」이라는 資本의, 또는 資本主義의 一般定式은, 「生産物을 購入하는 것은 生産物이다」라는 Say의 販路法則과 形式的·內容的으로 對立·對照의 關係에 있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될 줄 생각한다. 形式的으로 對立·對照의 關係에 있다는 것은 資本의 一般定式 $G \cdots G'$ 에 있어서는 出發點과 終局點에 다 같이 貨幣가 있는데 대해서, Say의 販路法則에 있어서는 出發點과 終局點에 다 같이 商品이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한편 內容的으로 對立·對照의 關係에 있다고 하는 말의 趣旨은 다음과 같다.

「生産物을 購入하는 것은 生産物이다」라는 Say의 販路法則은, 貨幣가 一般的交換手段機能만을 營爲하고 一般的價值尺度機能=價格基準設定機能은 營爲하지 못한다고 前提한 根據 위에서만 誘導가 可能한 理論인 데 대해서, $G \cdots G'$ 의 定式은 貨幣의 一般的交換手段機能과 貨幣의 一般的價值尺度機能=價格基準設定機能이라는 貨幣의 두 개의 基本的 機能을 둘 다 前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誘導될 수 없는 理論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貨幣의 一般的交換手段機能을 前提하지 않고서는 $G \cdots W \cdots G'$ 自體가 成立不可能한 것이 되고 말 것이며, 한편 貨幣의 一般的價值尺度機能=價格基準設定機能을 前提하지 않고서는 利潤自體의 獨立的인 計算이 不可能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극히 重要的 結論이 誘導될 줄 안다. 즉 貨幣의 두 개의 基本的 機能인 一般的交換手段機能과 一般的價值尺度機能을 完全無缺하게 說明해 내는 貨幣理論으로부터서만 올바른 資本理論도 誘導될 수 있다라는 극히 重要的 結論이.

5) 그러던 다음에는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에 관해서 보기로 하겠다. 「前期的

(6) *Ibid.*, S. 165.

資本』이란 產業資本(資本主義的 生産方法)이 發生되기 以前에 存在하고 있었던 資本을 말하며, 具體的으로는 前期的 商業資本(商人資本)과 前期的 高利貸資本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事實이다. Marx는 이것을 「洪水前的 形態」(antediluvianische Gestalten)⁽⁷⁾의 資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에 대해서 產業資本(資本主義的 生産方法)에 從屬하고 있는 近代商業資本이 있다는 것도 周知의 事實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前記한 바와 같이,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은 貨幣를 媒介로 하는 單純商品生産의 基礎 위에서 發生되었다. Marx는 「商品流通은 資本의 出發點이다」⁽⁸⁾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이 Marx의 말은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이 單純商品生産의 基礎 위에서 發生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이 어떻게 單純商品生産의 基礎 위에서 發生되었느냐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單純商品生産 $W-G-W'$ 과 商業資本 $G-W-G'$ 의 두 개의 形態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單純商品生産 $W-G-W'$ 과 商業資本 $G-W-G'$ 의 두 개의 形態를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은 差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즉 前者는 出發點과 終局點이 다 같이 商品인 데 대하여, 後者는 出發點과 終局點이 꼭 같이 貨幣라는 것이다. 즉 前者는 購買하기 위해서 販賣하는 交換行動인 데 대하여 後者는 販賣하기 위해서 購買하는 交換行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前者의 循環形態에 있어서의 貨幣는 一般的交換手段에 그치고 있는 데 대해서, 後者의 循環形態에 있어서의 貨幣는 곧 資本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도 沒却해서는 안될 事實이다. 이리하여 單純한 貨幣로서의 貨幣의 流通과 資本으로서의 貨幣의 流通이 여기서 對立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음의 Marx의 말이 成立될 수 있게 된다. 「貨幣로서의 貨幣(Geld als Geld)와 資本으로서의 貨幣(Geld als Kapital)는 우선 첫째로, 그 相異하는 流通形態에 의해서 區別지워진다.」(傍點原書)⁽⁹⁾ 그리고 또 前者의 循環形態는 단순히 主觀的·心理的인 交換剩餘(生産者剩餘·消費者剩餘)의 追求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後者의 循環形態는 回收貨幣資本에서 投下貨幣資本을 控除한 客觀的·物理的인 貨幣利潤의 追求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는 差異點도 있다. 이리하여 $W-G-W'$ 가 $G-W-G'$ 로 轉換됨으로써, 그리고 또 一般的交換手段으로서의 貨

(7) *Ibid.*, S. 171.

(8) *Ibid.*, S. 153.

(9) *Ibid.*, S. 153.

幣가 資本으로서의 貨幣로 轉換됨으로써, 交換行動의 目的도 主觀的·心理的인 交換剩餘의 追求로부터 客觀的·物理的인 利潤追求로의 轉換을 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G-W-G'$ 가 $W-G-W'$ 와 다른 것은, $W-G-W'$ 에 있어서는 항상 主觀的·心理的인 生産者剩餘와 消費者剩餘가 둘 다 같이 併存하고 있는 데 대하여, $G-W-G'$ 에 있어서는 客觀的·物理的인 生産者剩餘(商業利潤)만이 存在하고 있을 뿐 消費者剩餘는 存在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W-G-W'$ 에 있어서는 $W-G$ 의 사이에는 生産者剩餘가, 그리고 $G-W'$ 의 사이에는 消費者剩餘가 항상 發生되기 마련이다. 즉 $W-G$ 와 같은 販賣行動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그 사람이 販賣行動을 통해서 獲得할 수 있는 G 의 効用勞動量 $L_A(G)$ 이, 그 사람이 販賣行動을 통해서 喪失하는 効用勞動量 $L_A(W)$ 보다 크기 때문이다(이 경우 W 의 効用勞動量 $L_A(W)$ 은 W 의 投下勞動量 $L(W)$ 보다 크다). 즉 $L_A(G) - L_A(W)$ 만큼의 生産者剩餘가 成立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G-W'$ 와 같은 購買行動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그 사람이 購買行動을 통해서 獲得할 수 있는 W' 의 効用勞動量 $L_A(W')$ 이, 그 사람이 購買行動을 통해서 喪失하는 G 의 効用勞動量 $L_A(G)$ 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L_A(W') - L_A(G)$ 만큼의 消費者剩餘가 成立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W-G$ 사이에는 生産者剩餘가 成立되면서도, $G-W'$ 사이에는 消費者剩餘가 成立되지 않을 때에는, $W-G-W'$ 는 $W-G$ 만 進行되고, 거기서 그저 버리는 結果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G-W-G'$ 의 경우에 있어서는 $G-W$ 에 있어 消費者剩餘가 發生되지 않는다. 그것은, 商人이 自己가 消費할 目的으로 W 를 購買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G-W$ 는 반드시 $W-G'$ 로 이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生産者剩餘인 商業利潤은 $W-G'$ 에서도 發生되지 않는다. 生産者剩餘인 商業利潤은 실로 $G-W-G'$ 의 全過程을 통해서 비로소 獲得될 수 있는 그러한 對象物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G-W-G'$ 에 있어서는 消費者剩餘는 發生되지 않고 오직 生産者剩餘인 商業利潤만이 發生되며, 그리고 또 $G-W-G'$ 는 $W-G-W'$ 가 $W-G$ 와 $G-W$ 로 分離될 수 있듯이, $G-W$ 와 $G-W'$ 로 分離될 수 없으며, 오직 $G-W-G'$ 으로서만, 즉 $G \cdots G'$ 으로서만 存立할 수 있는 特殊한 生理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이 問題에 관해서는 나중에 不等價交換을 論하는 지리에서 다시금 言及할 機會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III의 4, 參照). 그러면 다음에는, 貨幣經濟 또는 貨幣를 媒介로 하는 單純商品生産 $W-G-W'$ 는 어떻게 해서 前期的 商業資本 $G-W-G'$ 을 成立시키는 基礎가 되게 되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前期的 商業資本은 元來 어떠한 商品을 賤 價格으로 購買해서 그것을 비싼 價格으로 販

賣해서 그 差額 즉 前期的 商業利潤을 確保하는 것을 그 固有的 任務로 삼고 있는 形態의 資本이다. 즉 前期的 商業資本이 成立可能하기 위해서는 同一種類의 商品에 價格上의 差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必要條件으로서 要求된다. 그런데 그 「同一種類의 商品에 價格上의 差異가 있어야 된다」는 條件은 바로 貨幣를 媒介로 하는 單純商品生産 $W-G-W'$ 가 充足시켜 주게 된다. 이리하여 $W-G-W'$ 는 前期的 商業資本 $G-W-G'$ 가 그 위에서 成立되는 基礎가 된다고 할 수 있다.

6) Marx에 있어서는 價值法則 즉 等價交換의 法則의 根本的 誤謬 때문에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이 正當한 取扱을 받지 못하고 있다. Marx는 『資本論』 第1卷 第2篇 第4章 第2節에서 前期的 商業資本을 取扱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本來의 商業資本에 있어서는 $G-W-G'$ 인 形態, 즉 보다 高價로 販賣하기 위해서 購買한다는 것이 가장 純粹하게 나타난다」고 前期的 商業資本에 관해서 올바른 見解를 表明하고 있으면서도, 곧 이어 「그러나 流通自身으로부터 貨幣의 資本으로의 轉化, 剩餘價値의 形成을 說明하는 것은 不可能事에 속하므로, 商業資本은 等價가 交換되는 것을 前提로 하는 限 그 成立이 不可能하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의 固有的 存立意義를 否認하려고 하고 있다.⁽¹⁰⁾ 그리하여 Marx에 있어서는 前期的 商業資本은 「다만 購買하는 商品生産者와 販賣하는 商品生産者와의 사이에 寄生的으로 介入하는 商人에 의해서, 이들 商品生産者雙方이 다 같이 詐欺(Übervorteilung)된다는 前提 위에서만」 成立이 可能하다고 되고 있다.⁽¹¹⁾ 우리는 여기서 Marx의 價值法則 즉 等價交換의 法則의 根本的 誤謬 때문에 그 固有的 存在意義를 否認당하고 있는 前期的 商業資本의 悲慘한 相을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의 當面課題는, 等價交換의 法則의 根本的 誤謬 때문에 無慘하게도 그 存在를 否認당하고 있는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에 正當한 理論的 根據를 賦與함으로써, 그것을 蘇生시키는 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에 관한 歷史的 描寫는, M. Weber의 『經濟史』 第3章 「前資本主義的 時代에 있어서의 財貨 및 貨幣의 流通」, 그리고 L. Brentano의 『近世資本主義의 起源』, 『商業과 資本主義』 등에서 試圖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意圖는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에 관한 歷史的 描寫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理論의 再構成에 있으므로, 理論的 問題와 關聯되는 範圍內에서만 歷史的 問題를 取扱하기로 한다.

(10) *Ibid.*, S. 171.

(11) *Ibid.*, SS. 171-172.

II. $G-W-G'$ 의 運動形態

1)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은 間接交換 내지는 貨幣經濟 또는 貨幣를 媒介로 하는 單純商品生産의 基礎 위에서 發生되었다고 우리는 말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前期的 商業資本은 $W-G-W'$ 過程에서 作用하는 모든 交換法則의 支配를 그대로 完全無缺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첫째로, 前期的 商業資本은 需要價格으로 表示되는 需要曲線과 需要價格=供給價格으로 表示되는 供給曲線(代替費用曲線)에 의해서 形成되는 Böhm-Bawerk의 市場에 있어 成立된다. 그리고 따라서 둘째로, 前期的 商業資本이 購買하고 또 販賣하는 商品의 價格은 價格表示인 効用曲線으로부터 誘導되는 需要曲線과 供給曲線(代替費用曲線)에 의해서 決定되는 바로 그 價格에 다름없다. 이와 같이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은 순전히 Böhm-Bawerk의 前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의 原理 위에서 成立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이 成立될 수 있는 市場狀況을 다음의 두 가지로 區分하고 그 各各에서 成立되는 前期的 商業資本의 運動形態에 관해서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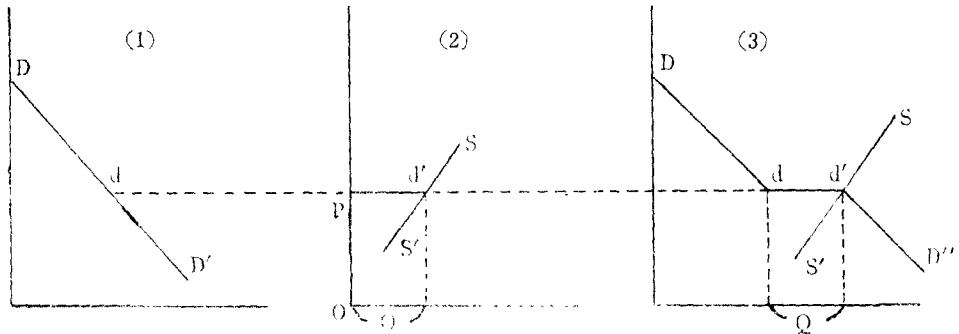
(I) 時間A 場所甲의 市場으로부터 時間A 場所乙의 市場에로의 前期的 商業資本의 運動

(II) 時間A 場所甲의 市場으로부터 時間B 場所甲의 市場에로의 前期的 商業資本의 運動

2)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論及하기 前에 우리는 먼저 前期的 商業資本이 貨幣를 媒介로 하는 單純商品生産 $W-G-W'$ 過程에 들어 갈 때에, Böhm-Bawerk의 市場에 있어서의 需要曲線과 供給曲線(代替費用曲線)이 어떻게 變形되는가하는 것을 우선 보기로 하자.

만약 單數의 商人이 어떠한 商品을 그때의 市場價格 즉 均衡價格 OP 로써 Q 量만큼 購買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第1圖>(2)와 같이 表示될 수 있을 것이다. 즉 商人의 需要曲線은 水平形態를 취하게 된다. 但 이 경우에 있어서, 價格 OP 는 商人의 商品에 대한 需要價格이 아니고 바로 商品의 市場價格=均衡價格이므로 供給曲線은 반드시 d' 點을 通過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第1圖>(1)은 一般的인 需要曲線을 表示하고 있다. 一般的인 需要曲線은 그 商品을 消費할 目的으로 購買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商品에 대한 需要價格을 表示하므로 右下形態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2)의 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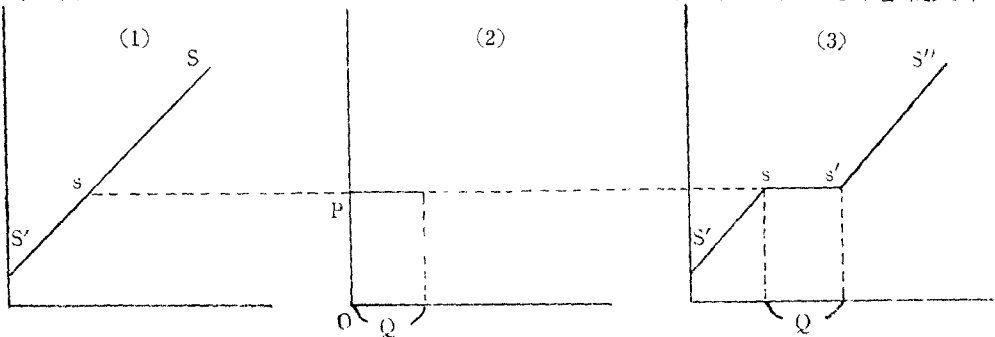
人的 水平形態의 需要曲線이 (1)의 一般的인 右下形態의 需要曲線에 介入하게 될 때, 그 商品에 대한 總需要曲線은 <第1圖>(3)과 같이 變形하게 될 것이다. 즉 (1)의 dD' 는 Q 만큼 右方으로 移動하여 (3)의 $d'D''$ 가 됨으로써 (1)의 DdD' 는 (3)과 같은 $Ddd'D''$ 가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供給曲線은 (3)의 d' 點을 通過하게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第1圖>

그리고 이때 $OP \times Q$ 가 商人의 投下貨幣資本額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第1圖> (3)에 있어, 需要者는 商人과 一般需要者의 두 가지 形態의 需要者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 두 가지 形態의 需要者는 다같은 需要者이면서도 전혀 그 性格을 달리하는 需要者들이다. 商人需要者는 消費者로서 그 商品에 대한 効用을 追求해서 購買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商人의 需要曲線은 効用曲線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商人의 需要曲線은 實質費用인 平均費用曲線이 된다. 이에 反해서 一般消費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消費者로서 効用을 追求하고 있기 때문에 그 需要曲線이 効用曲線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리하여 <第1圖>(3)의 複合需要曲線은 効用曲線과 實質費用曲線의 두 가지의 混合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다음에, 商人의 그 商品에 대한 供給價格이 OP 이고 販賣量이 Q 라고 한다면 商人의



<第2圖>

供給曲線은 <第 2 圖>(2)와 같이 表示될 수 있을 것이다.

이 商人의 供給曲線도 商人의 需要曲線과 同一形態의 水平形態를 取하게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서, 一般供給者들의 供給曲線은 <第 2 圖>(1)과 같이 右上形態를 取하게 될 것이다(供給曲線은 바로 「뒤집은 需要曲線」이므로). 그리고 (2)의 商人의 供給曲線이 (1)의 一般的인 供給曲線에 介入하게 될 때 그 商品에 대한 總供給曲線은 <第 2 圖>(3)과 같은 形態로 變形하게 될 것이다. 즉 (1)의 S_s 는 Q 量만큼 右方으로 移動하여 (3)의 $S''s'$ 가 됨으로써 (1)의 S_sS' 는 (3)의 $S''s'sS'$ 가 된다.

그리고 이 때도 $OP \times Q$ 가 商人의 投下貨幣資本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第 2 圖>(3)에 있어 供給者는 商人과 一般供給者의 두 가지 形態의 供給者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 두 가지 形態의 供給者는 다같은 供給者이면서도 전혀 그 性格을 달리하는 供給者들이다. 商人供給者는 消費者로서 그 商品을 交換에 提供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商人의 供給曲線은 效用曲線 즉 代替費用曲線이 될 수 없다. 즉 商人供給者는 自己의 商品을 交換에 提供함으로써 아무런 効用의 損失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商人供給者는 自己의 商品을 交換에 提供함으로써 어떠한 種類의 損失을 보게 되느냐 하면, 商人이 그 商品을 購買하는 데 投下했던 만큼의 勞動量의 損失을 보게 될 따름이다. 즉 商人供給者의 供給曲線은 實質費用인 平均費用曲線을 表示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一般供給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供給者가 消費者로서 知覺하는 効用을 拋棄하고 있는 것이 表示되고 있기 때문에, 그 供給曲線은 喪失되는 効用의 曲線(「뒤집은 需要曲線」) 즉 代替費用曲線이 된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다. 이리하여 <第 2 圖>(3)의 複合供給曲線은 代替費用曲線과 實質費用曲線의 두 가지의 混合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一般供給者들의 代替費用은 一般供給者들의 供給價格을, 그리고 商人의 實質費用은 商人의 供給價格을 各各 表示하므로, <第 2 圖>(3)의 複合供給曲線은 同털어 供給者의 供給價格을 表示하는 曲線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第 1 圖>(3)의 複合需要曲線은 同털어 需要者들의 需要價格을 表示하는 曲線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一般需要者들의 右下形態의 需要曲線은 一般需要者들의 需要價格을 表示하는 曲線이지만, 商人의 水平形態의 需要曲線은 商人의 그 商品에 대한 需要價格이 아니라 바로 그 商品의 市場價格=均衡價格을 表示하는 平均實質費用曲線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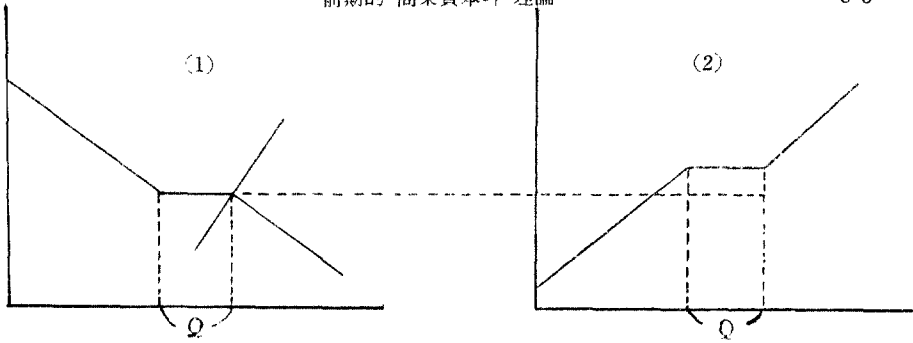
4) <第 1 圖>(3)은 商人이 購買者로서 介入했을 때 示顯되는 全體市場需要曲線이므로, <第 1 圖>(3)은 $G - W - G'$ 의 $G - W$ 過程에 속하는 事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第 2 圖>(3)은 商人이 販賣者로서 介入했을 때에 現象되는 全體市場供給曲線이므로, <第 2

圖) (3)은 $G-W-G'$ 의 $W-G'$ 과정에 속하는 事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販賣되는 W 商品은 販賣者에게 喪失되는 効用 즉 代替費用을 意味하지 않고 그 實質費用을 意味하므로 W 는 $L_1(W')$ 가 되지 않고 實質費用 G 를 表示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注意해야 할 點은 實質費用은 W 商品의 投下勞動量 $L(W)$ 이 되지 않고 W 商品을 購買하기 위해서 支拂된 勞動量 즉 $L(G)$ 이 된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만약 商人이 W 商品을 直接 生産했다고 한다면 W 商品의 實質費用은 $L(W)$ 가 되겠지만 商人은 W 商品을 生産에 의해서 즉 $L(W)$ 의 勞動量을 投下함으로써가 아니라 購買에 의해서 즉 $L(G)$ 의 勞動量을 支拂함으로써 獲得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W-G'$ 는 $G-(W)-G'$ 가 된다. 그리하여 $G-W-G'$ 과정에 있어서는 W 의 投下勞動量(labor embodied)은 사실상 無意味한 것이 되고 대신 W 의 支拂勞動量(labor paid)이 意味를 갖게 된다. 즉 $G-W-G'$ 과정에 있어서는 W 의 投下勞動量의 役割을 W 의 支拂勞動量이 대신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또 $G-W-G'$ 과정에 있어서는 抽象的 人間勞動의 概念은 不必要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抽象的 人間勞動은 種類를 달리하는 異質勞動을 比較하기 위해서 考案해낸 通用物(Gelten)인데, 이제는 比較할 異質勞動이 存在하지 않게 되었으며 比較해야 할 對象은 오직 G 와 G' 의 同一種類的 具體的 勞動량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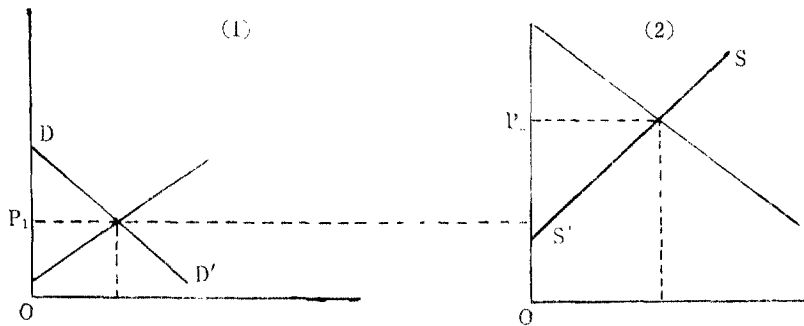
그리하여 $G-W-G'$ 는 第1段階에서, 時間A 場所甲에서 需要曲線의 一部로 나타났다가 第2段階에서, 時間A 場所乙에서 또는 時間B 場所甲에서 供給曲線의 一部로 나타나게 된다는 理論이 成立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경우 時間A 場所甲의 需要曲線에 있어서는 商人의 費用價格과 需要量이, 時間A 場所乙의 또는 時間B 場所甲의 供給曲線에 있어서는 商人의 供給價格과 供給량으로 變化하게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5) 그러나 그 商品의 一般需要者들의 需要曲線에 編入되는 商人의 需要曲線의 費用價格(그 商品의 甲市場에 있어서는 市場價格=均衡價格)은 실제로는 그 商品의 一般供給者들의 供給曲線에 編入되는 商人의 供給曲線의 供給價格과 같지가 않다. 실제로는 그 商品의 商人의 供給價格이 그 商品의 商人의 費用價格(그 商品의 甲市場에 있어서는 市場價格=均衡價格) 보다 커야만 될 것이다. 그 理由는 乙市場에 있어서는 그 商品의 商人의 供給價格은 甲市場에 있어서는 商人의 費用價格(그 商品의 甲市場에 있어서는 市場價格=均衡價格) 보다 商品單位當 必要流通費(保管費·輸送費等) 프러스 商品單位當 正常利潤만큼 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結局 <第2圖>(3)은 다음 <第3圖>(2)와 같이 修正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第 3 圖〉

6) 그러면 이제부터는 $W-G-W'$ 로부터 어떻게 必然的으로 前期的 商業資本 $G-W-G'$ 가 發生되게 되었는가를 究明해 보기로 하겠다. 貨幣를 媒介로 하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서는 需要曲線도 効用曲線이며 供給曲線도 効用曲線(代替費用曲線)인 Böhm-Bawerk의 市場이 成立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記述한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需要曲線도 効用曲線이고 供給曲線도 効用曲線(代替費用曲線)인 Böhm-Bawerk의 市場 두 개를 想定하기로 한다. 但 이 두 개의 Böhm-Bawerk의 市場은 同一種類의 商品을 賣買하는 市場이며, 하나의 市場은 時間A 場所甲의 市場인 데 대하여 또 하나의 市場은 時間A 場所乙의 市場이며, 또 두 개의 市場에 있어 賣買되고 있는 同一種類의 商品의 貨幣價格은 各各 다르다고 한다(〈第 4 圖〉, 參照).



〈第 4 圖〉

이렇게 同一時點에 있어 同一種類의 商品에 價格差異가 있는 두 개의 市場이 存在할 경우에는 前期的 商業資本이 必然的으로 成立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前期的 商業資本은 低價格地域(〈第 4 圖〉(1))에서 商品을 싼 價格으로 購買해서 高價格地域(〈第 4 圖〉(2))에서 그것을 비싼 價格으로 販賣 해서 그 差額 즉 前期的 商業利潤을 獲得하는 그러한 種類의 資本이기 때문이다. 이 「싼 價格으로 購買해서 비싼 價格으로 販賣」하는 貨幣의 運動을 記號로 表示하면 곧 $G-W-G'$ 가 된다. 이와 같이 前期的 商業資本은 地域間的 價格差異가 存在하는 限 만드시 成立되어야 할 必然性을 갖는 그러한 存在이다. 그런데 貨幣

를 媒介로 하는 單純商品生産 $W \rightarrow G \rightarrow W'$ 에서 成立되는 各地域마다의 同一種類의 商品의 Böhm-Bawerk 의 市場에서 決定되는 價格은 어떠한 市場에서는 低位를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하여 다른 어떠한 市場에서는 高位를 나타내고 있는 식으로 同一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이리하여 復數의 $W \rightarrow G \rightarrow W'$ 가 存在하면 그로부터 必然的으로 $G \rightarrow W \rightarrow G'$ 가 發生된다는 우리의 命題는 證明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W \rightarrow G \rightarrow W'$ 가 $G \rightarrow W \rightarrow G'$ 의 基礎 또는 下部構造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W \rightarrow G \rightarrow W'$ 로부터의 $G \rightarrow W \rightarrow G'$ 의 發生의 必然性, 또는 「貨幣의 資本에로의 轉化的 必然性」 등에 관한 理論的 問題는 Marx 의 價值法則 즉 等價交換의 法則에 立脚하는 限 절대로 올바르게 解明될 수 없는 課題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 여기서 말해 두고자 한다. Marx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貨幣의 資本에로의 轉化는 販賣者가 商品을 그 價值以上으로 販賣하는 것에 의해서도, 購買者가 그것을 그 價值以下로 購買하는 것에 의해서도 說明될 수 없다.」 왜냐하면 Marx 에 의하면 「商品交換은 그 純粹한 樣態에 있어서는 等價의 交換이며 따라서 價値를 增加시키기 위한 手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 이리하여 Marx 에 있어서는 前期的 商業資本의 發生의 必然性 또는 「貨幣의 資本에로의 轉化的 必然性」은 도저히 說明될 수 없는 課題가 되고 말았다. 사실은 前期的 商業資本 또는 「貨幣의 資本에로의 轉化」는 Marx 가 말한 것과는 正反對로 低價格地域에서 商品을 싼 價格으로 購買해서 그것을 高價格地域에서 싸 價格으로 販賣해서 그 價格差異에서 發生하는 差額 즉 前期的 商業利潤을 獲得하는데서 成立되며, 商品의 價值(平均投下勞動量)는 이 경우, 商人의 意識領域에서 全的으로 捨象되어 버리고마는 그러한 存在이며, 商人은 오로지 $G \rightarrow W \rightarrow G'$ 의 G' 가 G 보다 커야만 된다는 데 關心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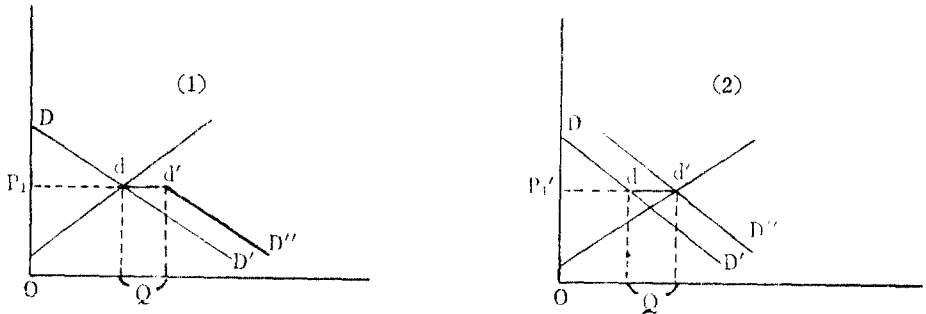
Marx 는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에 관해서 理論을 展開한 唯一無二의 學者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前期的 商業資本에 관한 理論은 投下勞動量基準交換・等價交換이란 옳지 못한 前提 때문에 完全히 틀린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Marx 의 前期的 商業資本에 관한 理論이 틀렸다고 해서 近代經濟學者가 하고 있듯이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의 存在自體를 無視해 버리는 態度를 取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私見에 의하면 올바른 前期的 商業資本에 관한 理論은 올바른 貨幣理論이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의 基礎 위에서만 그 成立이 可能하듯이 이것도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의 基礎 위에서만 그 成立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12) *Ibid.*, S. 166.

7) 그러면 다음에는, (1) 時間A 場所 甲의 Böhm-Bawerk 의 市場으로부터 時間A 場所 乙의 Böhm-Bawerk 의 市場으로 움직이는 前期的 商業資本의 運動에 關係서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지금 <第4圖> (1)을 時間A 場所 甲의 Böhm-Bawerk 의 市場이라고 하고, <第4圖>(2)를 時間A 場所 乙의 Böhm-Bawerk 의 市場이라고 하며, 또 두 개의 市場은 물론 同一種類의 商品을 賣買하고 있는 市場이라고 하며, 또 <第4圖>(1) 市場의 商品價格 OP_1 가 <第4圖> (2) 市場의 商品價格 OP_2 보다 低位에 있다고 假定해 두기로 한다.

이와 같은 두 개의 Böhm-Bawerk 의 市場이 存在할 때, 商人은 <第4圖>(1) 市場에서 賤價格 OP_1 로 商品을 購買해서 그것을 <第4圖>(2) 市場에서 貴賤價格 OP_2 로 販賣할 때에는 價格差異만큼의 前期的 商業利潤을 獲得할 수 있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計算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商人은 <第4圖>(1) 市場에서 購買行動을 시작하게 된다. 商人은 價格이 OP_1 일적에는 Q 量만큼 購買하기를 決心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決心을 한 商人이 <第4圖> (1) 市場에 介入하게 되었을 때, <第4圖>(1) 市場의 需要曲線 DdD' 는 <第5圖>(1) 市場의 $Ddd'D''$ 가 되지를 않고 <第5圖>(2) 市場의 $Ddd'D''$ 가 될 것이다(<第5圖>(1)(2)의 $d'D''$ 는 dD' 가 Q 量만큼 右方으로 移動한 것에 다름 없다).



<第5圖>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만약에 一般需要者들의 需要曲線(右下形態)에다가 商人의 需要曲線(水平形態)이 追加됨으로써 形成되는 複合需要曲線이, <第5圖>(1)에서와 같은 $Ddd'D''$ 가 된다면 價格 OP_1 에서 商人의 購買量을 包含한 需要量은 P_1d' 가 되는데 對해서 供給量은 P_1d 가 되며 需要 > 供給이 되므로 價格 OP_1 는 上昇運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第5圖>(1)은 均衡狀態에 있는 Böhm-Bawerk 의 市場 즉 <第4圖>(1)에 商人이 購買者로서 介入하게 될 때에는 需要量이 供給量 보다 더 커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對해서 <第5圖>(2)는 價格 OP_1' 에서 商人의 購買量 Q 를 包含한 需要量이 供給量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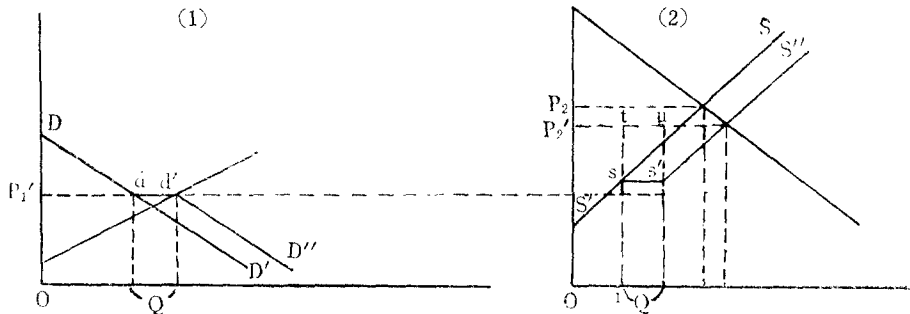
一致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第5圖>(2)의 均衡價格 OP_1' 가 <第4圖>(1)의 均衡價格 OP_1 보다 高位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要約하면, 商人이 <第4圖>(1)에서 均衡價格 OP_1 로 Q 量만큼 購買하고자 할 때에는 價格이 <第5圖>(2)의 OP_1' 로 上昇하게 되며 同時에 均衡需給量도 增加된다는 말이다. 즉 商人이 購買者로서 <第4圖>(1)市場에 介入하게 될 때, 需要曲線은 <第4圖>(1)의 DdD' 로부터 <第5圖>(2)의 $Ddd'D''$ 로 變形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第5圖>(2)의 複合需要曲線 $Ddd'D''$ 가운데에서, Dd 와 $d'D''$ 의 部分은 効用曲線을 表示하고 있지만 dd' 의 部分은 實費費用曲線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은 前記한 바와 같다. 즉 Dd 와 $d'D''$ 의 部分은 一般需要者들의 限界需要價格으로 形成된 曲線을 表示하고 있지만, dd' 의 部分은 商人의 平均費用으로 形成된 直線을 表示하고 있다. 따라서 價格 OP_1' 는 一般需要者들에게는 限界支出의 意味를 갖고 있지만, 商人에게는 平均費用의 意味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그리고 <第4圖>(1)에 購買者로서 介入하는 商人의 數는 單數일 수도 있고 또 複數일 수도 있으나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위에서 말한 것이 成立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8) 다음에는 商人이 <第4圖>(2)에 販賣者로서 介入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商人이 <第5圖>(2) 또는 <第6圖>(1)에서 商品을 OP_1' 의 價格으로 Q 量만큼 購買한 것을 <第4圖>(2)의 Böhm-Bawerk 의 市場에서 販賣하게 될 때에는, <第4圖>(2)의 供給曲線 SsS' 는 <第6圖>(2)의 $S''s'S'$ 와 같이 變形하게 되며 均衡價格도 OP_2 에서 OP_2' 로 下落하는 現象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第6圖>(2)의 $S''s'$ 는 Ss 가 Q 量만큼 右方으로 移動한 것에 다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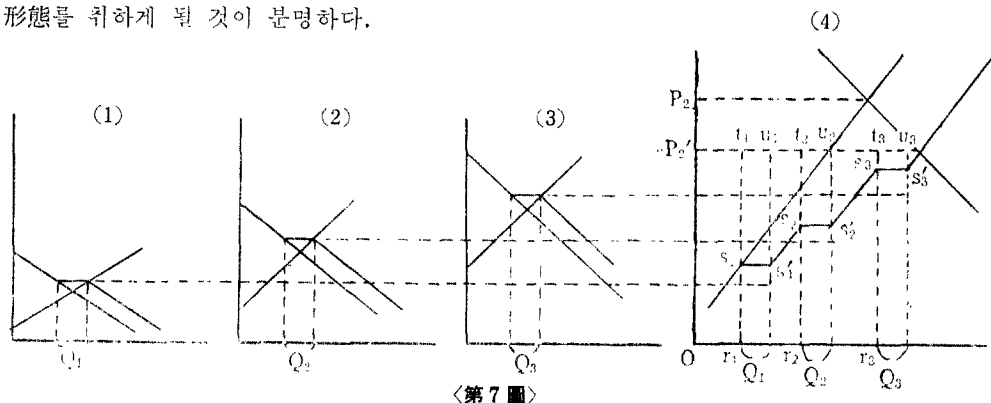


<第6圖>

이 경우에 $dd' = ss' = Q$ 가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또 하나 注意해야 할 것은

$rs > OP_1'$ 가 된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rs = OP_1' +$ 單位當必要流通費 + 單位當正常利潤이라는 關係가 成立되기 때문이다(II의 (5) 參照). 그리고 商人이 販賣者로서 介入하기 前에는 <第 4 圖>(2)에 있어서의 均衡價格은 OP_2 이었었는데 商人이 販賣者로서 介入한 뒤에 있어서의 均衡價格이 <第 6 圖>(2)의 OP_2' 로 下落하게 되었다며 同時에 均衡需給量도 增加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複合供給曲線 $S''s'S'$ 가운데에서 $S''s'$ 와 sS' 의 部分은 限界供給價格으로 形成된 代替費用曲線을 表示하고 있지만, ss' 의 部分은 平均供給價格으로 形成된 實質費用曲線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事實이다. 따라서 價格 OP_2' 는 一般供給者들에게는 限界收入을 意味하고 있지만 商人에게는 平均收入을 意味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그런데 <第 6 圖>(2)에 販賣者로서 介入하는 商人의 數가 複數일 경우에는 우리가 한가지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點이 있다.

9) 만약 複數의 同一種類의 商品의 市場이 있다고 하고 그 複數의 市場에 있어서의 各價格이 서로 다르다고 하고(<第 7 圖> (1)(2)(3)), 그리고 또 어떤 市場에 있어서의 그 商品의 價格이 이 複數의 <第 7 圖>(1)(2)(3) 市場에 있어서의 各價格보다 일등히 높다고 한다면, 商人들은 複數의 <第 7 圖>(1)(2)(3)의 低價格市場에서 싼 價格으로 그 商品을 購買해서 그것을 <第 7 圖>(4)의 高價格 市場에서 비싼 價格으로 販賣하여 前期의 商業利潤을 獲得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때 複數의 <第 7 圖>(1)(2)(3) 市場에서 購買해 들인 商品價格에도 高低의 差異가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右上形態를 취하는 一般供給者들의 供給曲線에 編入시킬 때에는 複合供給曲線은 <第 7 圖>(4)에서 보는 바와 같은 階段式 右上形態를 취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第 7 圖>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複數의 <第 7 圖>(1)(2)(3)의 市場에 있어서의 各價格이 全般적으로 上昇하는 대신, <第 7 圖>(4) 市場에 있어서의 價格이 OP_2 에서 OP_2' 로 下落하게 된다는 것은 單數商人의 경우와 꼭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第6圖>(2)에 있어 얼마만큼의 前期的 商業利潤(超過利潤으로서의)이 確保될 수 있게 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OP_2' - rs) \times Q$ 만큼의, 즉 $ss'ut$ 만큼의 前期的 商業利潤이 確保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第7圖>(4)의 複數商人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OP_2' - r_1s_1) \times Q$, $(OP_2' - r_2s_2) \times Q$, $(OP_2' - r_3s_3) \times Q$ 만큼의, 즉 $s_1s_1'u_1t_1$, $s_2s_2'u_2t_2$, $s_3s_3'u_3t_3$ 만큼의 前期的 商業利潤이 確保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複數商人의 경우에 있어서는 商品의 購買價格의 高低에 따라 獲得되는 前期的 商業利潤에도 多寡의 差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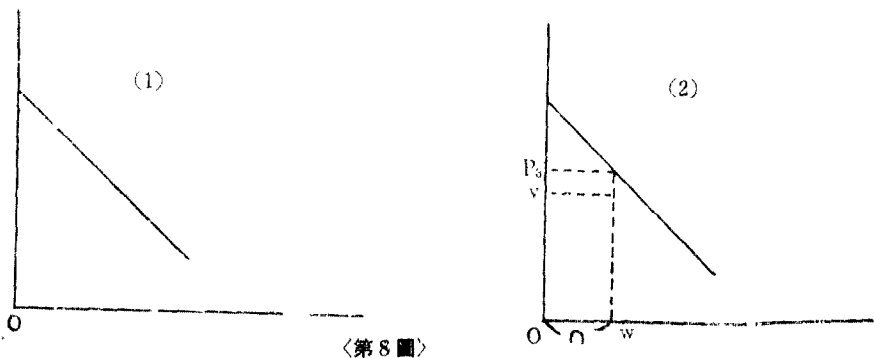
10) 前期的 商業資本 $G - W - G'$ 는 <第6圖>(1) (또는 <第7圖>(1)(2)(3))과 <第6圖>(2) (또는 <第7圖>(4))에 의해서 各各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G - W - G'$ 의 G 는 <第6圖>(1) (또는 <第7圖>(1)(2)(3))의 複合需要曲線의 一部인 實質費用을 表示하는 水平部分에 의해서 그리고 또 <第6圖>(2) (또는 <第7圖>(4))의 複合供給曲線의 一部인 實質費用을 表示하는 水平部分에 의해서, 平均値에 의해서도 그리고 또 全體値에 의해서도 各各 表示될 수 있게 된다. 但 <第6圖>(2) (또는 <第7圖>(4))의 市場에서 商人이 支出하고 있는 實質費用 $G - rs \times Q$ 는, <第6圖>(1) (또는 <第7圖>(1)(2)(3))에서 商人이 商品을 購買하기 위해서 支出하는 實質費用 $OP_1' \times Q$ 에다가 流通費와 正常利潤도 包含하고 있는 實質費用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事實이다. 이 實質費用을 根元概念으로 表示할 때에는 前記한 바와 같이, W 의 投下勞動量이 되지 않고 W 의 支拂勞動量이 될 것이다. 그것은 代替費用을 根元概念으로 表示할 때 W 의 効用 또는 効用勞動량이 되는 것과 對照를 이루고 있다.

이리하여 $G - W - G'$ 에 있어서는, W 의 投下勞動量 $L(W)$ 은 완전히 그 意義를 喪失하게 되고 W 의 支拂勞動量 $L(G)$ 의 貨幣의 表現인 實質費用 G 가 意義를 갖게 된다. 이것은 前記한 바와 같이 $G - W - G'$ 에 있어서는 商品의 投下勞動量의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商品의 支拂勞動量이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G - W - G'$ 의 G' 는 <第6圖>(2) (또는 <第7圖>(4))의 $OP_2' \times Q$ 에 의해서, 平均値에 의해서도 그리고 또 全體値에 의해서도 各各 表示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第6圖>(1) (또는 <第7圖>(1)(2)(3))과 <第6圖>(2) (또는 <第7圖>(4))에 의해서, $G - W - G'$ 의 G 와 G' 는 W 의 支拂勞動量의 貨幣의 表現인 實質費用과 그 支配勞動量의 貨幣의 表示인 價格으로 各各 表示되며, W 自體의 投下勞動量 $L(W)$ 는 그림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고 만다. 사실 $G - W - G'$ 에 있어 事前的 意義를 갖는 것은 G 와 G' 의 둘이며, G' 가 G 보다 크다는 豫測만 確立되면 $G - W - G'$ 는 그 成立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換言하면 商人

은 $L(W)$ 과 $L(G)$ 을 또는 $L(G')$ 와 $L(W)$ 을 比較해서 購買・販賣行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G' 와 G (즉 $L(G')$ 와 $L(G)$)를 比較해서 購買・販賣行動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Brentano는 這問의 事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商業은 商品을 技術的인 效用을 目的으로 해서 購買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다 비싼 價格으로 다시 販賣하기 위해서(um sie zu einem höheren Preis wieder zu verkaufen) 購買한다. 商業에 있어서는 商品은 그것을 購買했을 때의 貨幣價値와 또 그것을 販賣했을 때의 貨幣價値의 單純한 具體化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商業의 固有活動은 항상 比較하는 것이고 計算하는 것(Vergleichen und Rechnen)이다. 즉 먼저 어떠한 商品에 一定의 金額을 投入하고 다음에 그것을 一定金額으로 다시 回收해 들인다. 그리하여 投入金額과 再販賣時 回收될 수 있는 金額을 比較하게 된다. 投入貨幣價値와 回收貨幣價値의 比較는 發生된 剩餘를 商業從事者에게 提示하게 되며 商業從事者의 努力을 이 剩餘를 될 수 있도록 크게 하는데 集中시킨다.」(傍點筆者)⁽¹³⁾

11) 그런데 時間 A 場所 乙의 市場에는 또 하나의 形態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沒却해서는 안될 줄 생각한다. <第 4 圖>(2)의 市場은 商人이 그 商品을 그 市場에 가져 들어오기 前에 벌써 그 商品에 관한 市場이 成立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商人은 무엇 때문에 그 市場에 그 商品을 가지고 들어갔을까. 一般供給者들의 供給曲線에 商人의 供給曲線을 合計한 複合供給曲線과 需要曲線이 交叉되어서 決定되는 價格(<第 6 圖>(2) 또는 <第 7 圖>(4)의 OP_2')이, 商人이 時間 A 場所 甲의 市場(<第 4 圖>(1))에 介入함으로써 거기서 購買하는 그 商品의 價格(<第 6 圖>(1) 또는 <第 7 圖>(1)(2)(3)의 OP_1')보다 비싸다는 것이 豫測됨으로써 前期的 商業利潤의 確保가 確實視되었기 때문이다.



(13) L. Brentano, "Die Anfänge des modernen Kapitalismus," *Der wirtschaftende Mensch in der Geschichte*, 1923, SS. 213-214.

그런데 또하나 存在한다는 時間 A 場所 乙의 市場形態란 그 商品에 대한 需要曲線만이 存在하고 있을 뿐 그 商品의 供給曲線이 存在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市場形態이다(〈第 8 圖〉(1), 參照).

즉 〈第 8 圖〉(1)의 市場에는 그 商品이 전혀 存在하지를 않는다. 만약 이러한 〈第 8 圖〉(1)의 市場에, 〈第 5 圖〉(2)의 市場에서 價格 OP_1' 로써 購買된 Q 量의 어떠한 商品이 搬入되었을 때 그 商品價格은 어떻게 決定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Marshall의 所謂「一時的 均衡」의 理論에 따라서 決定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즉 〈第 8 圖〉(2)에서 $Ow=Q$ 라고 할 때에는 OP_3 가 決定되는 價格이 된다. 그리고 Ov 가 商品의 購買價格+單位當流通費+單位當正常利潤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면 vP_3 가 곧 그 商品을 〈第 8 圖〉(2)의 市場에서 販賣해서 確保할 수 있는 單位當 前期的 商業利潤(超過利潤으로서의)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第 4 圖〉(1) 市場과 〈第 8 圖〉(1) 市場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의 運動이 可能하게 된다.

위에서 또한 우리는 Marshall의 所謂 一時的 均衡의 理論이 歷史적으로 볼 때에는 前期的 商業資本의 理論의 一部에 속한다는 것도 把握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時間 A 場所 甲의 市場으로부터 時間 A 場所 乙의 市場으로 運動하는 前期的 商業資本의 運營者를 M. Weber는 「外來商人」(ortsfremder Händler)이라고 불렀다. M. Weber에 의하면, 이 外來商人에는, (1) 店舖가 外來商人에 의해서 創設되었으며 그리고 순전히 그들 自身の 利害關係에 따라서 運營되는 경우와(London에 있어서의 獨逸 Hanza 商人과 같은), (2) 國內의 商人이 外來商人의 이러한 施設을 特許하고 그리고 그들 外來商人의 營業活動을 監督하는 경우의(Venis에 있어서의 獨逸商人의 Fondaco와 같은)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M. Weber에 의하면, 商業은 始初에 있어서는 異民族사이의 現象이었으며, 同一種族 또는 同一團體 사이에 있어서는 行해지지 않았던 純「對外的現象」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職業的 商人階級이 存在하기 위해서는 우선 商品輸送의 技術的 先行條件이 確立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⁴⁾

12) 위에서 우리가 말한 前期的 商業利潤이란 商品의 販賣價格 $\times Q$ 즉 G' 에서 商品의 購買價格 $\times Q$ +必要流通費+正常利潤 즉 G 를 控除한 差額 즉 超過利潤을 意味하고 있다는 것은 前記한 바와 같다. 正常利潤이라는 것은 통털어 資本家가 自己가 成就해 놓은 經濟行動의 代價로서 應當 받아야 할 報酬를 意味하며, 正常利潤의 「正常」은 그가 받는 報酬가 그가 바친 犧牲보다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14) M. Weber, *Wirtschaftsgeschichte*, 1924, SS. 180-190.

다. 그리하여 超過利潤으로서의 前期的 商業利潤이 成立되는 限, <第 6 圖>(2), <第 7 圖>(4), <第 8 圖>(2) 등의 市場에는 繼續 商品이 流入됨으로써 이들 市場에 있어서의 價格은 繼續 下落하게 될 것이고, 反面 그 商品을 流出시키는 <第 6 圖>(1), <第 7 圖>(1)(2)(3) 등의 市場에 있어서의 價格은 繼續 上昇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窮極에 가서는 地域差에 따르는 同一種類의 商品의 價格差異는 解消되고 一物一價의 現象이 普遍化됨으로써 單一の 世界市場이 成立되게 될 것이다. 15 世紀末부터 16 世紀에 걸쳐 東印度貿易과 新大陸貿易을 2大主軸으로 해서 행해진 「商業革命」이 地球上에 單一の 世界市場을 現出시켜 놓은 前期的 商業資本의 巨大한 運動이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3) 다음에는 (II) 時間 A 場所 甲의 市場으로부터 時間 B 場所 甲의 市場으로 움직이는 前期的 商業資本의 運動에 관해서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時間 A 場所 甲의 市場으로 움직이는 前期的 商業資本이란, 同一時點에 있어서의 同一種類의 商品의 地域間價格差異를 利用해서 「싼 價格으로 購買해서 비싼 價格으로 販賣」해서 超過利潤으로서의 前期的 商業利潤을 獲得하는 그러한 方式을 取하지 않고, 同一地域에 있어서의 同一種類의 商品의 時間上에 있어서의 價格差異를 利用해서 「싼 價格으로 購買해서 비싼 價格으로 販賣」해서 超過利潤으로서의 前期的 商業利潤을 獲得하는 그러한 方式을 取하고 있는 前期的 商業資本을 말한다.

이 경우도, 時間 A 場所 甲의 市場으로부터 時間 A 場所 乙의 市場으로의 移動의 경우에 準해서 다음과 같이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즉 <第 4 圖>(1)을 時間 A 場所 甲의 市場 <第 4 圖>(2)를 時間 B 場所 甲의 市場으로 看做해서, (I)의 경우와 倅간이 說明될 수가 있다. 이 경우 時間 A가 時間 B보다 앞서며, 또 價格 OP_1 이 價格 OP_2 보다 低位에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場所 甲에 있어서의 商人(이 商人은 單數라고 해도 좋고 複數라고 해도 좋다)은 우선 時間 A에 <第 4 圖>(1)의 Böhm-Bawerk의 市場에 購買者로서 介入함으로써 <第 5 圖>(2)를 成立케 만든다. 물론 商人은 이 경우 商人이 介入하기 前의 <第 4 圖>(1)의 均衡價格 OP_1 로써 購買하는 것이 아니고 一般需要者들의 需要曲線(右下形態의 効用曲線)과 商人의 需要曲線(水平形態의 實質費用曲線)의 合計인 複合需要曲線과 一般供給者들의 供給曲線의 交叉에 의해서 決定되는 均衡價格 즉 <第 5 圖>(2)의 OP_1' 로써 購買하게 된다. 그리하여 商人은 그가 購買한 商品을 倉庫에 保管해 두고 商品의 價格이 上昇되기만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一定時間이 經過된 後, 時間 B에 場所 甲의 <第 5 圖>(2)市場이 <第 4 圖>(2)의 Böhm-Bawerk의 市場形態로 다시 變形됨으로써 價格 OP_1' 가 그 보다 높은 OP_2 가 되었

다고 한다면 商人은 時間 A 에 산 價格 OP_1' 로 購買하여 保管해 두고 있던 商品을 그 <第4圖>(2)의 市場에서 다시 비싼 價格 OP_2 로 販賣하려고 할 것이다. 時間 B 場所 甲의 <第4圖>(2)의 市場에 商人이 販賣者로서 介入하게 될 때에는 一般供給者들의 供給曲線(뒤집은 右上形態의 需要曲線)과 商人의 供給曲線(水平形態의 實質費用曲線)의 合成體인 複合供給曲線이 形成되며, 結局 <第4圖>(2)는 <第6圖>(2)로 變形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경우 場所 甲 以外的 場所로부터 廉價로 購買된 商品이 多數流入될 때에는 <第7圖>(4)가 成立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경우 <第6圖>(2) 또는 <第7圖>(4)市場에서 商人은 價格 OP_2 로 販賣할 수 없고 그보다 若干 下落한 價格 OP_2' 로 販賣하게 된다는 것도 말할 것 없다. 이와 같이 時間 A 場所 甲으로부터의 時間 B 場所 甲에로의 前期的 商業資本의 運動도 時間 A 場所 甲으로부터의 時間 A 場所 乙에로의 前期的 商業資本의 運動과 그 樣式에 있어서는 꼭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時間 A 場所 甲의 市場으로부터 時間 B 場所 甲의 市場으로 運動하는 前期的 商業資本의 運營者를 M. Weber 는 「定住商人」(ortsansässiger Händler)이라고 불렀다. M. Weber 에 의하면, 「定住商人」은 주로 小賣商人을 意味하는 데 대해서 「外來商人」은 주로 都賣商人을 意味한다는 것이다.⁽¹⁵⁾

우리는 以上에서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이 $W-G-W'$ 過程에서 成立되는 Böhm-Bawerk 의 市場에 購買者 그리고 販賣者로 介入함으로써 그들 市場에서 成立되는 絕對價格 決定의 原理에 어떻게 順應하면서 前期的 商業利潤을 追求할 수 있는가를 보아왔다. 우리는 또 前期的 商業資本이, ① 地域間差異에 起因하는 價格差를 利用해서, ② 時間上의 差異에 起因하는 價格差를 利用해서, 前期的 商業利潤을 追求한다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W-G-W'$ 過程에서 成立되는 Böhm-Bawerk 의 市場에 있어서의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이 前期的 商業資本이 介入됨으로써 効用曲線+實質費用曲線으로 變形된다는 것도 보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資本概念에는 實質費用概念이 그 不可缺條件의 하나로서 內包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그리고 <第5圖>(2)市場에 있어서도 不等式 (20)⁽¹⁶⁾은 그대로 成立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前期的 商業資本이 介入됨으로써 不等式 (20)에 다음과 같은 修正이 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될 줄 생각한다.

(15) *Ibid.*, SS. 191-195.

(16) 拙稿, 「交換 및 貨幣의 一般理論」, 『經濟論集』, 第IX卷 第3號, p. 72.

$$\left. \begin{array}{l} L(m_1G) > L_{A_1}(x_1W) \qquad L_{B_1}(x_1'W) > L(m_1'G) \\ L(m_2G) > L_{A_2}(x_2W) \qquad L_{B_2}(x_2'W) > L(m_2'G) \\ \dots\dots\dots \\ L(m_rG) > L_{A_r}(x_rW) \qquad L_{B_r}(x_r'W) > L(m_r'G) \end{array} \right\} \dots\dots\dots (1)$$

$$\frac{m_1}{x_1} = \frac{m_2}{x_2} = \dots = \frac{m_r}{x_r} = OP_1' = \frac{m_1'}{x_1'} = \frac{m_2'}{x_2'} = \dots = \frac{m_r'}{x_r'} \dots\dots\dots (2)$$

$$x_1 + x_1 + \dots + x_r = x_1' + x_2' + \dots + x_r' \dots\dots\dots (3)$$

$$(m_1 + m_2 + \dots + m_r = m_1' + m_2' + \dots + m_r')$$

지금 前期的 商業資本 $m_1'G - x_1'W - G'$ 가 購買者로서 市場에 介入되고 있다고 할 때, $m_1'G - x_1'W$ 에서는 前記한 바와 같이 消費者剩餘가 成立되지 않는다. 그 理由는 商人이 $x_1'W$ 를 購買한 것은, 그 效用 $L_{B_1}(x_1'W)$ 를 追求해서 購買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L_{B_1}(x_1'W) \not> (m_1'G)$ 가 된다. 그러나 商人購買者를 除外한 其他 購買者의 경우에 있어 消費者剩餘가 成立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또 <第 4 圖>(1)에서 方程式(19)가 成立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事實이다. (17) 즉 方程式(19)에서 決定되는 價格은 바로 <第 4 圖>(1)에 있어서의 OP 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商人이 購買者로서 介入하게 되는 <第 5 圖>(2)의 需要曲線 $Ddd'D''$ 는 <第 5 圖>(1)의 需要曲線 $DD'(D=D(P))$ 가 Q 量만큼 右方으로 移動했는 것에 따름없기 때문에 需要曲線 $Ddd'D''$ 를 D' 라고 한다면

$$D' = D'(P)$$

가 成立되게 될 것이다.

그러하여 結局 商人이 購買者로서 介入하게 되는 <第 5 圖>(2)市場에 있어서의 價格 OP_1' 는

$$\left. \begin{array}{l} D' = D'(P) \\ S = S(P) \\ D'(P) = S(P) \end{array} \right\} \dots\dots\dots (4)$$

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理論이 成立되게 된다.

다음에 前期的 商業資本 $G - x, W - m, G'$ 가 販賣者로서 介入하게 되는 第 6 圖(2)市場에 있어서도 不等式 (20)은 그대로 成立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不等

(17) 「前掲論文」, p.72

式(20)은 다음과 같이 修正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begin{array}{ll}
 L(m_1G) > L_{A_1}(x_1W) & L_{B_1}(x_1'W) > L(m_1'G) \\
 L(m_2G) > L_{B_2}(x_2W) & L_{B_2}(x_2'W) > L(m_2'G) \\
 \dots\dots\dots & \dots\dots\dots \\
 L(m_{r-1}G) > L_{A_{r-1}}(x_{r-1}W) & \dots\dots\dots \\
 L(m_rG') > L(G) & L_{B_r}(x_r'W) > L(m_r'G)
 \end{array} \dots\dots\dots (5)$$

$$\frac{m_1}{x_1} = \frac{m_2}{x_2} = \dots = \frac{m_r}{x_r} = OP_2' = \frac{m_1'}{x_1'} = \frac{m_2'}{x_2'} = \dots = \frac{m_r'}{x_r'} \dots\dots\dots (6)$$

$$x_1 + x_2 + \dots + x_r = x_1' + x_2' + \dots + x_r' \dots\dots\dots (7)$$

$$(m_1 + m_2 + \dots + m_r = m_1' + m_2' + \dots + m_r')$$

그 理由는 前期의 商業資本 $G - x_rW - m_rG'$ 가 販賣者로서 市場에 介入하게 될 때, $x_rW - m_rG'$ 에서는 前記한 바와 같이 主觀的·心理的인 生産者剩餘 $L(m_rG') - L_{A_r}(x_rW)$ 가 成立되지를 않고 客觀的·物理的인 前期의 商業利潤 $L(m_rG') - L(G)$ 가 成立되기 때문이다. 즉 商人은 x_rW 를 販賣함으로써 x_rW 의 効用勞動量 $L_{A_r}(x_rW)$ 를 喪失하지 않고 x_rW 의 支拂勞動量 $L(G)$ 를 喪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方程式(6)(7)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또 <第4圖>(2)에 있어서도 方程式(19)는 成立되고 있을 것이다. 즉 方程式(19)에서 決定되는 價格이 이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第4圖>(2)에 있어서의 OP_2 에 다른 없다. 그런데 商人이 販賣者로서 介入하게 되는 <第6圖>(2)의 供給曲線 $S''s'sS$ 는 <第4圖>(2)의 供給曲線 $SS'(S=S(P))$ 가 Q 量만큼 右方으로 移動했는 것에 다른 없기 때문에 供給曲線 $S''s'sS$ 를 S' 라고 한다면 이경우에도 역시

$$S' = S'(P)$$

가 成立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結局 商人이 販賣者로서 介入하게 되는 <第6圖>(2)市場에 있어서의 價格 OP_2' 는

$$\left. \begin{array}{l}
 D = D(P) \\
 S' = S'(P) \\
 D(P) = S'(P)
 \end{array} \right\} \dots\dots\dots (8)$$

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理論이 成立될 수 있게 된다.

15) 지금 不等式(20)과 不等式(1)을 比較해 보면 다음 두 가지 點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① 商人이 購買行動을 하는 $m_r'G - x_r'W$ 에서는 消費者剩餘가 發生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L_{B_1}(x_1'W) > L(m_1'G)$ 가 된다는 것이다. (2) $L_{A_1}(x_1W), L_{A_2}(x_2W), \dots, L_{A_r}(x_rW); L(m_1'G), L(m_2'G), \dots, L(m_{r-1}'G)$ 는 모두가 代替費用을 表示하고 있지만 $L(m_1'G)$ 만은 實質費用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 不等式 (20)과 不等式 (5)를 比較해 보아도 다음 두 가지 點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① 商人이 販賣行動을 하는 $x_rW - m_rG'$ 에서는, $L(m_rG) > L_{A_r}(x_rW)$ 가 成立되지를 않고, $L(m_rG) > L(G)$ 가 成立된다. ② $L_{A_1}(x_1W), L_{A_2}(x_2W), \dots, L_{A_{r-1}}(x_{r-1}W); L(m_1'G), L(m_2'G), \dots, L(m_r'G)$ 는 모두가 다 代替費用을 表示하고 있지만, $L(G)$ 만은 實質費用을 表示하고 있다. 結局 不等式 (20)과 不等式(1), (5)를 比較해서 알 수 있는 것은, 不等式 (20)에는 代替費用概念만이 登場하고 있지만 不等式 (1), (5)에는 代替費用과 實質費用의 두 개의 概念이 나란히 登場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不等式 (20)은 前記한 바와 같이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이라는 交換法則 I로부터 誘導된 結論이 있었다. 그러나 生産者=供給者가 消費者=需要者와 一致되고 있다는 貨幣를 媒介로 하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特殊한 事情 때문에 投下勞動量은 이 경우 交換條件에서 捨象될 수가 있었다.⁽¹⁸⁾ 그리하여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은 効用一元基準交換이라는 말하자면 그 抽象的인 形態로서 스스로를 貫徹하는 相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前期的 商業資本 $G-W-G'$ 가 介入하고 있는 不等式 (1), (5)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捨象되고 있던 投下勞動量이 實質費用이라는 形態로서 다시금 交換條件 속에 登場하게 됨으로써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이 文字 그대로 具體的인 形態에 있어 스스로를 貫徹하는 相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投下勞動量」이 이 경우 「支拂勞動量」으로 形態轉換을 하게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論及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이라는 交換法則 I이 前期的 商業資本이 介入하고 있는 市場에 있어서는 完全顯示的인 形態로서 貫徹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方程式 (2)(3) 또는 方程式 (6)(7) 또는 方程式 (4) 내지는 方程式 (8)이 前期的 商業資本이 購買하고 販賣하는 商品의 數量과 價格이 全的으로 交換法則 II 需要供給의 法則의 規制 밑에 있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III. $G-W-G'$ 過程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

1) 以上에 있어 우리는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業資本이 어떻게 交換法則 I 効用勞動二

(18) 「前揭論文」, p. 67, 參照.

元基準交換과 交換法則 II 需要量과 供給量에 의한 價格決定의 規制 밑에 있는가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前期의 商業資本에 있어 貫徹되고 있는 交換法則 III 支配勞動量交換・不等價交換에 관해서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즉 우리는 이제부터는 前期의 商業利潤에 관해서 考察해 볼 차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以下에 있어 前期의 商業利潤이라고 할 적에는 언제나 正常利潤을 控除한 超過利潤으로서의 前期의 商業利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밝혀 두기로 한다.

2) 먼저 前期의 商業利潤을 外的인 現象形態面에서 볼 때에는

$$\text{前期의 商業利潤} = \text{商品販賣價格} \times \text{販賣量} - (\text{商品購買價格} \times \text{購買量} + \text{必要流通費} + \text{正常利潤})$$

(但 販賣量 = 購買量)

와 같이 表示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商品一單位當으로 表示하면 물론

$$\text{單位當前期의 商業利潤} = \text{商品販賣價格} - (\text{商品購買價格} + \text{單位當流通費} + \text{單位當正常利潤})$$

이 된다. 그런데 이 購買價格・販賣價格・購買量 = 販賣量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商人이 購買者 또는 販賣者로서 介入하는 Böhm-Bawerk 의 市場에서 相互依存的으로 決定된다. 우리는 이 市場에 있어서의 購買價格・販賣價格・購買量 = 販賣量의 相互依存的 決定理論을 無限히 貴중한 理論으로 여기고 이 理論의 據點을 어디까지나 固守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것은 이 理論의 根據에 의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前期의 商業資本의 理論이 도저히 誘導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 이 理論이야말로 前期의 商業資本에 適用된 Marx 의 價値論의 無力을 如實히 證明해 낼 수 있는 威力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Marx 의 價値法則 즉 等價交換의 法則에 의해서는 $G-W-G'$ 過程에서 成立되는 購買價格・販賣價格 그리고 購買價格과 購買量의, 販賣價格과 販賣量의 相互依存的 關係가 도저히 說明되지 않기 때문이다. Marx 는 商品을 「價値以上」 또는 「價値以下」로 販賣 내지는 購買하는 데에서는 前期의 商業利潤은 發生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假定하기로 한다. 販賣者에게 무엇인지 모르나 하나의 特權이 주어져서 販賣者는 그 商品을 價値以上으로, 價値가 100 이라고 할 때 110 으로, 즉 10퍼센트의 名目的인 價格引上(nominelle Preisauflschlag)에 의해서 販賣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럴 때 販賣者는 10의 剩餘價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販賣者는 또 購買者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第3의 商品所有者가 이제야 그에 대해서 販賣者로서 대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도 10퍼센트 비싸게 自己의 商品을 販賣할 수 있는 特權을 갖게 된다. 그 사람은 販賣者로서

10 을 얻었으나 이번에는 購買者로서 10 을 잃게 될 것이다. 全體의으로 볼 때에는 사실상 이와 같은 結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모든 商品所有者가 그 商品을 서로가 10 만큼 價値以上으로 販賣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一般的인 名目的인 商品價格引上은 商品價値를 金 대신에 銀으로 評價하는 것과 同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商品의 貨幣名, 즉 價格은 增大되어도 그 價値比率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反對로 다음과 같은 狀況을 想定해 보기로 하자. 購買者에게 特權이 있어 商品을 價値以下로 購買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購買者는 購買者이기 前에 먼저 販賣者였기 때문에 그는 購買者로서 10 퍼센트를 利得보기에 앞서 벌써 10 퍼센트를 잃고 있는 것이다. 剩餘價値의 形成 따라서 貨幣의 資本에로의 轉化는 販賣者가 商品을 그 價値以上으로 販賣하는 데에서도 購買者가 그것을 그 價値以下로 購買하는 데에서도 說明될 수 없는 것이다.」⁽¹⁹⁾

그리하여 Marx 에 의하면 「等價가 交換된다고 해도 剩餘價値가 成立안되고 不等價가 交換된다고 해도 剩餘價値가 成立안된다. 流通 또는 商品交換은 아무런 價値도 發生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⁰⁾

그러면 前期的 商業利潤은 어떻게 해서 成立되는가. 그에 관해서 Marx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本來의 商業資本에 있어서는 G-W-G' 인 形態, 즉 보다 비싸게 販賣하기 위해서 購買한다는 것이 가장 純粹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한편 그 全運動은 流通過程內部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流通自身으로부터 貨幣의 資本에로의 轉化, 剩餘價値의 形成을 說明하는 것은 不可能事에 속한다. 商業資本은 等價가 交換되면 不可能하게 된다. 다만 購買하는 商品生産者와 販賣하는 商品生産者와의 사이에 寄生的으로 介入하는 商人에 의해서 이들 商品生産者의 雙方이 다 같이 詐欺된으로써만 商業資本은 誘導된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 Frankline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戰爭은 掠奪이고 商業은 詐欺이다》라고.⁽²¹⁾ 즉 Marx 에 의하면 前期的 商業利潤은 「詐欺」에 의해서만 成立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前記한 바와 같이 前期的 商業利潤은 市場에서 需要量과 供給量에 의해서 決定되는 固有의 商品價格의 差異에 의해서 즉 交換法則 II의 基礎 위에서 正正當當하게 成立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詐欺」가 아닌 것이다. Marx 는 또 「價値以上」, 「價値以下」 그리고 「名目的인 價格引上」 등의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데 이들 Marx 의 用語는 Marx 의 그릇

(19) K. Marx, a. a. O., S. 168.

(20) *Ibid.*, S. 171.

(21) *Ibid.*, SS. 171-172.

된 投下勞動價值論의 根據 위에서 需要量과 供給量에 의해서 決定되는 市場價格을 說明하려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事實歪曲의인 用語라고 할 수 밖에 없을 줄 생각한다. Marx는 「販賣者에게 무엇인지 모르나 商品을 價値以上으로, 즉 100의 價値를 110으로 名目的인 價格引上을 함으로써 販賣할 수 있는 特權이 주어지 있다고 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 Marx의 말은 Marx가 Marshall의 需要價格概念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바가 있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을 줄 생각한다. 販賣者가 「名目的인 價格引上」을 해도 商品이 販賣되는 根據에는 消費者가 그에 應하는 姿勢가 있어야 되는 법인데 消費者가 價格引上에 應하는 그 姿勢란 消費者의 그 商品에 대한 需要價格이 引上된 市場價格보다 더 높음으로써 引上된 價格으로 購買해도 그래도 消費者剩餘가 發生될 수 있다는 그러한 前提를 말한다. 그러므로 Marx가 「名目的인 價格引上」을 云云하고 있는 것은 Marx의 價値論에 需要價格概念이 缺如되고 있다는 것의 表示라고 보아야 할 줄 안다. 그리고 또 우리는 商品價格은 市場에서 商人을 包含한 多數 需要者들의 需要量과 商人을 包含한 多數 供給者들의 供給量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Marx의 증거 使用하는 말을 빌어 表現한다면, 商品價格은 곧 商人의 意志를 超越하고 있는(independent of) 物的對象이며, 따라서 商人들이 함부로 引上시킬 수 있는 그러한 對象이 아니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사실은 商人이 Böhm-Bawerk의 市場에 介入하게 되면 商品價格은 도리어 下落하는 現象을 나타내게 되지만). 그러므로 「名目的인 價格引上」은 어느 모로 보나 「商人의 特權」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結論이 나오게 될 줄 안다. 以上을 통해서 우리는 結局 다음과 같은 結論에 도달하게 될 줄 안다. 즉 Marx의 價値法則에 立脚하는 限, $G-W-G'$ 過程에서 成立되는 購買價格·販賣價格·購買量=販賣量의 固有性은 도저히 誘導될 수 없는 理論的 課題에 속한다는 것이다.

3) 다음에 前期的 商業利潤을 本質面에서 究明해 볼 때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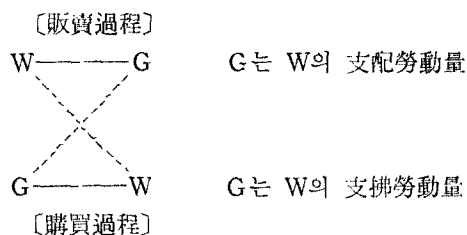
前期的 商業利潤 = 商品의 支配勞動量 - 商品의 支拂勞動量

즉 商品의 販賣額(販賣價格×販賣量)은 그 商品이 流通過程에서 支配하는 貨幣金의 投下勞動量의 表示가 되며 商品의 購買額(購買價格×購買量)은 그 商品에 대해서 流通過程에서 支拂되는 貨幣金의 投下勞動量의 表示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Malthus의 支配勞動價值論과 一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Malthus는 다음과 같은 見解를 表明하고 있기 때문이다. 「商品이 支配하는 勞動量은 그에 投下된 勞動量에 前拂에 대한 利潤을 加算한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사실상 그 自然的이고 必要한 供給의 諸條件

즉 價値를 決定하는 基本的 生産費를 表示하고 있다.」⁽²²⁾ 「諸商品이 그 自然狀態에 있어서 支配하는 勞動은 그들을 生産하는 데 必要的 勞動과 利潤의 量을 正確하게 表示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有效需要를 正確하게 表示하고 있다는 것은 重要的 諸結果를 發生케 하는 하나의 眞理이다.」⁽²³⁾

이와 같이 Malthus는 利潤의 本質을 商品의 支配勞動量과 商品의 投下勞動量의 差라고 보고 있다. 물론 여기서 商品의 「投下勞動量」이 商品의 「支拂勞動量」으로 修正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G-W-G'에 있어 L(G')는 확실히 W의 貨幣金으로 表示된 支配勞動量을 나타내고 있지만 L(G)는 貨幣金으로 表示된 W의 投下勞動量이 아니라 貨幣金으로 表示된 W의 支拂勞動量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L(G)가 W의 投下勞動量이 아니라 W의 支拂勞動量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 것일까.

L(G)가 W의 投下勞動量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바로 $L(G) = L(W)$ 와 같은 關係가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L(G)가 W의 支拂勞動量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곧 商人이 購買者의 立場에 立脚하고 있을 때의 말이고 이것을 販賣者의 立場에 立脚해서 말할 때에는 L(G)는 곧 W의 支配勞動量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販賣者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L(G)는 W의 支配勞動量이 되지만, 購買者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L(G)는 W의 支拂勞動量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支拂勞動量概念은 支配勞動量概念과 相即不離・表裏一體의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貨幣費用인 購買額은 購買商品의 投下勞動量의 表示가 아니고 購買商品의 支拂勞動量의 表示라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이리하여 Malthus는 支配勞動價値論을 完全無欠하게 貫徹하지를 못했으며, Ricardo式

(22) Th. Malthus, *Definitions in Political Economy*, 1827(Kelley), p. 125.

(23) *Ibid.*, p. 210.

投下勞動價值論과 混合된 不完全한 支配勞動價值論 밖에 展開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4) 다음에 前期的 商業利潤을 역시 本質面에서 考察해 볼 때 다음과 같은 關係가 追加的으로 成立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前期的 商業利潤 = 不等價交換에 의한 支拂勞動

이 等式은 前記 等式에서 自動的으로 誘導될 수 있는 等式이다.⁽²⁴⁾ W商品의 貨幣金으로 表示되는 支配勞動量 $L(G')$ 에서 W商品에 대한 貨幣金の 支拂勞動量 $L(G)$ 를 控除한 差額 $L(g') = L(G') - L(G)$ 는 單純히 流通過程에서 不等價交換을 통해서 獲得된 不拂勞動인 것이다. 여기서 不等價交換이라고 하는 것은 W의 支配勞動量 $L(G')$ 가 W의 支拂勞動量 $L(G)$ 보다 크다는 것을 意味하며 W의 價格 G' 가 W의 實質費用 G 보다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 즉 $G - W - G'$ 에서 $G' > G$ 가 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流通主義의 利潤發生理論의 見地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을 서슴치 않고 公然하게 表明하고자 하는 바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Marx의 非流通主義의 利潤發生理論에 全面的으로 反對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資本論』全3卷을 熟讀해 보면 Marx가 가장 精力的으로 그리고 또 가장 執拗하게 排擊하고 있는 理論의 하나가, 다름 아닌 바로 이 流通主義의 利潤發生理論이라는 것을 容易하게 깨달을 수 있을 줄 안다. Marx는 『資本論』第1卷 第2篇 第4章 第2節에서 特別히 狂暴的으로라고 해도 誇張치않은 流通主義의 利潤發生理論을 排擊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거기서 Marx는 前期的 商業利潤은 「價值以上」 또는 「價值以下」로 販賣 또는 購買하는 데에서 發生되지 않는다는 것을 되풀이 되풀이 反復力說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Marx는 「名目的인 商品價格引上」에 의해서 前期的 商業利潤이 發生되는 것이 아니라고 10回以上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商品所有者는 比싼 價格으로 販賣할 수 있는 特權」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剩餘價值는 名目的인 價格引上으로부터 發生된다든가 또는 商品을 比싼 價格으로 販賣하는 販賣者의 特權으로부터 發生된다든가 하는 妄想의 가장 徹底한 代表者들은 따라서 販賣하지 않고 購買하며 따라서 또 生産함이 없이 消費만 하는 階級을 想定하고 있다」⁽²⁵⁾고. 그러나 Marx의 價值法則 즉 等價交換의 法則에 立脚하는 限 前期的 商業利潤은 解明不可能의 對象이 되며 구태여 Marx의 價值法則에 立脚해서 前期的 商

(24) 「剩餘價值는 商品 또는 貨幣形態의 資本이 그가 包含하고 있는 勞動量을 超過해서 支配하는 勞動量의 超過分(不拂勞動)에 다름없다.」(R.L. Meek, *Marx and Engels on Malthus*, 1953, p. 127)

(25) K. Marx, a.a.O., S. 169.

業利潤을 說明하러면 前記한 바와 같이 불가불 「詐欺」의 方法에 의한 說明에 依存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說明方法이 얼마만큼 公明正大하지 못하며 또 얼마만큼 非現實的인 것인가 하는 것은 새삼스러이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前記의 商業利潤은 Marx의 等價交換의 法則에 의해서는 絶대로 解明될 수 없는 課題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確認해 두기로 하자.⁽²⁶⁾ 그러면 前期的 商業利潤의 本質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그것은 바로 不等價交換을 통해서 즉 싸게 購買해서 비싸게 販賣함으로써 獲得되는 不拂勞動에 다름없다는 것이 곧 우리의 理論이다. 즉 그것은 交換을 통해서 얻어지는 搾取의 產物인 것이다. 換言하면 前期的 商業利潤은 곧 讓渡利潤(profit upon alienation)인 것이다.

그리고 또 前期的 商業利潤의 本質이 商品의 支配勞動量에서 商品의 支拂勞動量을 控除한 差額 즉 不等價交換에 의한 不拂勞動이라는 것은 또 前期的 商業資本이 交換法則 III의 規制 밑에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前期的 商業資本이 W-G-W'의 Böhm-Bawerk의 市場에 紹介하여 그 市場에서 決定되는 價格에 따라서 商品을 購買하고 販賣하는 過程에 있어서는 그것은 확실히 交換法則 I과 交換法則 II의 規制 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交換法則 II를 人間對人間の 社會關係面에 投影해 보면 그것은 곧 交換法則 III이 되므로 따라서 前期的 商業資本 G-W-G'를 支配하는 法則도 結局 交換法則 I·交換法則 II·交換法則 III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5)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W-G-W'에 있어서의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과 G-W-G'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을 區別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W-G-W'에 있어서의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은 前記한 바와 같이 無意識的·無計劃的·事後的인 不等價交換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G-W-G'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은 意識的·計劃的·事前的인 不等價交換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그리고 또 한가지 注意해야 할 것은 W-G-W'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이란 G-W와 W-G'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을 指稱한다는 事實이다. 왜냐하면 W-G-W'에서는 W-G와 G-W'에서 生産者剩餘와 消費者剩餘가 各各 成立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G-

(26) 『資本論』第3卷에서는 Marx는 前期的 商業資本이 價値法則의 支配를 받지않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認定하고 있다. 「諸生産物은 價値대로 販賣된다면 純粹한 獨立的인 商業利潤은 成立不可能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비싸게 販賣하기 위해서 싸게 購買하는 것이 商業의 法則이다. 따라서 그것은 等價物의 交換이 아니다.」(K. Marx, *Das Kapital*, III, S.361) 여기서 분명히 Marx는 流通主義의 立場에 立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拙稿, 「前揭論文」, p.77.

W—G'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은 G—W—G'에 있어서의 G—W도 아니고 W—G'도 아닌 신로 G—W—G' 全過程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을 말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G—W—G'에 있어서는 G—W—G'의 全過程에 있어 前期的 商業利潤이 成立되기 때문이다. (28)

그러면 다음에는 G—W—G'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과 W—G—W'에 있어서의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은 서로 어떻게 關聯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지금 商人 A가 單純商品生産者 B₁, B₂, …, B_r에게 x 量의 W 商品을 n의 貨幣金을 받고 販賣했다고 하고 또 單純商品生産者 B₁는 貨幣金 n₁으로써 W 商品 x₁ 量을, 單純商品生産者 B₂는 貨幣金 n₂으로써 W 商品 x₂ 量을, …, 單純商品生産者 B_r은 貨幣金 n_r으로써 W 商品 x_r 量을 各各 購買했다고 하자.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된 것이다.

$$\begin{array}{rcl}
 A & mG & \text{---} xW \text{---} nG' \\
 & & \swarrow \quad \searrow \\
 B_1 & W_1 & \text{---} n_1G \text{---} x_1W \\
 B_2 & W_2 & \text{---} n_2G \text{---} x_2W \\
 & & \dots\dots\dots \\
 B_r & W_r & \text{---} n_rG \text{---} x_rW \\
 \\
 \frac{n_1}{x_1} & = & \frac{n_2}{x_2} = \dots = \frac{n_r}{x_r} = P = \frac{n}{x} \\
 \\
 x_1 + x_2 + \dots + x_r & = & x \\
 (n_1 + n_2 + \dots + n_r) & = & n
 \end{array}$$

그럴 때 單純商品生産者 B₁, B₂, …, B_r에게는 各各

$$\begin{array}{l}
 L_{B_1}(x_1W) - L(n_1G) \\
 L_{B_2}(x_2W) - L(n_2G) \\
 \dots\dots\dots \\
 L_{B_r}(x_rW) - L(n_rG)
 \end{array}$$

만큼의 消費者剩餘가 發生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單純商品生産者들의 購買過程 n₁G—x₁W, n₂G—x₂W, …, n_rG—x_rW에 있어서도 不等價交換이 行해지고 있다. 그런데

(28) 물론 G—W—G'에 있어서의 G—W와 W—G'에 있어서도 不等價交換은 行해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不等價交換은 어디까지나 無意識的·無計劃的·事後的 不等價交換(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이며 意識的·計劃的·事前的 不等價交換(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이 아니다. 意識的·計劃的·事前的 不等價交換은 G—W—G'에 있어서의 G—W와 W—G'가 아닌 G—W—G'의 全過程에 있어 行해지고 있다.

그 不等價交換은 無意識의·無計劃의·事後的인 不等價交換인 것이다. 즉 單純商品生産者들이 消費者剩餘를 追求하며 購買行動을 할 때에는 無意識의·事後的인 前資本主義의 不等價交換이 행해지는 셈이 된다. 그런데 單純商品生産者들이 消費者剩餘를 追求하며 購買行動 $n_1G-x_1W, n_2G-x_2W, \dots, n_iG-x_iW$ 을 한다는 것을 다른 側面에서 볼 때에는 곧 商人이 前期的 商業利潤을 追求하며 販賣行動 $xW-nG'$ 를 한다는 것을 意味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商人이 前期的 商業利潤을 確保할 수 있는 過程은 $xW-nG'$ 가 아니고 실로 $mG-xW-nG'$ 인 것이다. 왜냐하면 xW 의 費用은 $L_A(xW)$ 도 아니고 $L(xW)$ 도 아니고 실로 $L(mG)$ 즉 mG 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單純商品生産者들의 購買行動 $nG-xW$ 에 對應하는 商人의 販賣行動은 外觀上으로는 $xW-nG$ 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外觀上의 現象이며 실제로는 $mG-xW-nG'$ 이라는 극히 重要的 結論이 내려지게 될 줄 안다. 이것은 곧 다음과 같은 것을 意味하게 될 것이다. 즉 單純商品生産者들이 消費者剩餘를 追求하는 購買行動에서 發生되는 事後的인 前資本主義의 不等價交換과 商人이 前期的 商業利潤을 追求하는 販賣行動에서 發生되는 事前的인 資本主義의 不等價交換과는 相即不離·表裏一體의 關係에 있게 된다는.

6) 앞에서 우리는 前期的 商業利潤의 本質은 그것이 不等價交換을 통해서 獲得되는 不拂勞動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換言하면 前期的 商業利潤의 本質은 流通過程에서 獲得되는 搾取의 產物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그러면 搾取되는 對象은 대체 누구인가를 우리는 究明할 必要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G-W-G'$ 의 販賣過程 $W-G'$ 의 購買者 즉 $W-G-W'$ 의 $G-W'$ 가 된다는 것이다. 즉 商人의 商品을 購買하는 消費者가 바로 搾取의 對象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G-W-G'$ 는 $W-G-W'$ 와 分離해서 單獨으로 存在할 수 없게끔 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가 앞에서 提示해 놓은(I의 (1)), 資本主義一般은 $W-G-W'$ 를 交換相對者로 해야만 그 成立이 可能하고 또 $W-G-W'$ 가 $g=G'-G$ 의 窮極의 負擔者가 된다는 內容의 命題가 前期的 商業資本 $G-W-G'$ 의 경우에 있어 어떻게 妥當되느냐 하는 것이 이것으로써 立證되었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Marx의 價値論으로부터는 $W-G-W$ 와 $G-W-G'$ 의 相即不離性이라는 이 緊要한 事項이 도저히 誘導될 수가 없게끔 되고 있다. 이리하여 前期的 商業利潤을 그 實體面에서 볼 때에는 「消費者의 有効需要」가 된다는 또 하나의 規定이 確立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Malthus는 이 事項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즉 「有効需要는 諸商品에 대하여 直接的 物物交換에 의해서든 또는 迂回的 物物交換에 의해서든 그 生産에 投下된 것보다도 資本을 構成하

는 모든 要素의 若干보다 큰 割當을 주려는 消費者側의 能力 및 性向이다.」⁽²⁹⁾ 그러면 消費者는 무엇 때문에 그 「生産에 投下된 것」(사실은 「支拂된 것」) 보다도 더 큰 有効需要를 商人들에게 줄려고 하는 것일까. 前記한 바와 같이 消費者가 生産에 支拂된 것보다 더 큰 有効需要를 주어도 능히 消費者剩餘가 確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消費者는 消費者剩餘가 確保되는 限 商人의 搾取에 應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商人側에서 말하면 商人은 消費者의 消費者剩餘를 미끼로 그들을 搾取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留意해 두어야 할 것은, 모든 消費者가 原則적으로 빠짐없이 被搾取자가 되지만 그러나 嚴密히 말하면 消費者 가운데에서 商人消費者를 除外한 非商人消費者만이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被搾取자가 된다는 것이다. 商人도 그가 獲得한 前期의 商業利潤의 一部를 支出해서 生活必需品를 購買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商人도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消費者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商人이 消費者가 됨으로써 다른 商人에게 搾取당할 때의 그 搾取당한 有効需要形態의 不拂勞動도 따지고 보면 商人이 其他消費者로부터 搾取한 바로 그것에 다름이 없으므로, 結局 商人消費者의 有効需要는 窮極의 被搾取實體로부터 除外되어야 한다는 結論이 自動적으로 나오게 될 줄 알다. 이리하여 前期의 商業利潤의 實體를 이루고 있는 것은 非商人消費者(즉 單純商品生産者)의 有効需要라는 最後의 規定이 確立될 수 있게 될 줄 알다.

以上 우리가 前期의 商業利潤에 관해서 보아온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text{前期의 商業利潤} = \text{商品販賣價格} \times \text{販賣量} - (\text{商品購買價格} \times \text{購買量} + \text{必要流通費} + \text{正常利潤})$$

$$(\text{販賣量} = \text{購買量})$$

[現象形態面]

$$= \text{商品의 支配勞動量} - \text{商品의 支拂勞動量} \quad [\text{本質面}]$$

$$= \text{不等價交換에 의한 不拂勞動}$$

$$= \text{非商人消費者의 有効需要} \quad [\text{實體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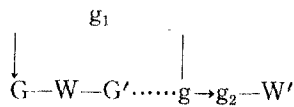
그러면 前期의 商業資本 내지 前期의 商業利潤의 成立은 經濟史上 어떠한 意義를 갖고 있는 것일까. 端的으로 말하면 前期의 商業資本 내지 前期의 商業利潤의 成立은 그것이 交換을 통해서 人間이 人間을 搾取하는 經濟의 最初의 形態를 이루고 있다는 點에서 重要

(29) Th. Malthus, *op. cit.*, p. 70; Cf. R.L. Meek, *op. cit.*, p. 137. 「一商品이 보통 支配하는 勞動量은 바로 그것의 有効需要를 나타내고 있다.」(Th. Malthus, *op. cit.*, p. 210)

한 意義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물론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도 不等價交換은 存在했으며 또 搾取도 存在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搾取經濟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理由는 $W-G-W'$ 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 내지 搾取는 無意識的·無計劃的·事後的인 不等價交換 그리고 搾取이었기 때문이다. 前期的 商業資本이 成立됨으로써 交換經濟 속에 最初의 意識的·計劃的·事前的 搾取經濟가 導入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그러면 不等價交換에 의한 不拂勞動을 追求하는 動機는 대체 무엇일까. 換言하면 意識的·計劃的·事前的·搾取經濟를 發生시킨 動機는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最後의 問題에 대하여 答을 주기로 하겠다. 不等價交換에 의한 不拂勞動이란, $G-W-G'$ 에 있어서 G 가 交換過程에서 G' 로 增殖될때의 그 增加額을 말하며, 이 增加額 즉 前期的 商業利潤은 商人이 商品의 販賣行動을 통해서 消費者로부터 搾取해내는 產物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면 商人은 왜 이러한 搾取의 產物인 前期的 商業利潤을 所有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商人의 前期的 商業利潤의 所有動機에 관해서 알아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먼저 商人이 前期的 商業利潤을 獲得한 뒤에 그것을 어떻게 使用하는지에 관해서 알아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첫째로 一部 追加資本이 되어 前期的 商業資本의 擴大再生産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다 多額의 前期的 商業利潤을 確保해내는 機能을 營爲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것은 商人의 生存을 維持하기 위한 生計費로 支出되게 될 것이다. 지금 g_1 을 追加資本化할 前期的 商業利潤이라고 하고 g_2 를 生計費로 支出될 前期的 商業利潤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G-W-G'$ 는 뭐니뭐니 해도 結局 $g \rightarrow g_2-W'$ 의 手段의 意義 밖에 못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前期的 商業利潤獲得의 窮極의 目標란 것도 따지고 보면 商人의 生計費 g' 를 獲得해내는 方便 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生計費를 獲得해내기 위하여 $W-G-W'$ 와 같은 經路를 거치지 않고 $G-W-G' \dots g \rightarrow g_2-W'$ 와 같은 經路를 거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W-G-W'$ 에 있어서의 G 는 W 商品을 $L(W)$ 만큼의 投下勞動量을 提供함으로써 獲得해낸 代價인 데 대해서, $G-$

$W-G' \dots g \rightarrow g_2 - W'$ 에 있어서의 g_2 는 不拂勞動 즉 搾取의 產物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G-W-G' \dots g \rightarrow g_2 - W$ 에 있어서의 生必品獲得이 $W-G-W$ 에 있어서의 生必品獲得보다 勞動이 節約된다는 利點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여기서 $G-W-G'$ 는 $W-G-W'$ 의 變形된 形態라는 窮極的 結論에 도달하게 될 줄 안다. 즉 $G-W-G'$ 는 $W-G-W'$ 에 勞動極小化가 作用함으로써 發生된 $W-G-W'$ 의 變形된 形態인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가 앞에서 提示해 놓은 (I의 (1)), 資本主義一般은 $W-G-W'$ 의 變形된 形態이다라는 우리의 命題가 前期的 商業資本의 경우에 있어 어떻게 妥當되느냐 하는 것이 이것으로써 立證되었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이것은 또 貨幣의 資本機能은 窮極的으로는 貨幣의 一般的 交換手段機能에 從屬하게 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될 것이다.

8) 우리는 여기서 Marshall의 正常利潤의 概念을 또한 導入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Marshal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將來의 生産을 위한 裝備을 만들고 또 營業關係라는 《非物質的》인 資本을 開發하는 데 投入한 資本 및 活力의 投資가 收益性이 있다고 認定될 때 그는 事業을 開始한다. 그들 投資로부터 期待되는 利潤은 모두 報酬 속에 計上되며 그 報酬는 그 冒險으로부터 長期的으로 期待되는 水準에 도달되고 있는가 아닌가가 檢討된다. 만약 그가 正常的인 能力의 所有者이며 冒險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決定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margin of doubt) 利潤은 問題된 서어비스의 (限界) 正常生産費를 가장 잘 代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正常利潤의 全部는 침된 내지는 長期的 供給價格에 算入된다.」⁽³⁰⁾

우리는 앞에서 (II의 (12)), 正常利潤이란 「企業者が 받는 報酬가 그가 바친 犠牲보다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은 그러한 報酬」라고 規定한 바 있는데, Marshall은 이것을 「冒險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決定짓지 못하고 있는 利潤」이라고 말하고 있다. Marshall은 正常利潤을 産業利潤의 構成要素로 보았지만, 正常利潤의 概念은 産業利潤에서는 물론 前期的 商業利潤에서도 近代商業利潤에서도 그리고 또 貸付利子에서도 다같이 必要로 하는 概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正常利潤은 支拂勞動量에 算入되며 따라서 不等價交換에 의해서 얻어지는 不拂勞動 즉 搾取의 產物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Marx 經濟學에서는 이 正常利潤이라는 것이 전혀 認定되지를 않고 있다.

(30)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ed., 1920, pp. 618-619.